

# 메주고리예



Medjugorje

January, 2007 제36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도 역시 나는, 새로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내 품에 안아  
너희에게 모셔다 드린다.  
천국과 지상의 왕이신 그분이 너희의 평화이시다.  
어린 자녀들아, 그분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너희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그분을 흠숭하고 선택하면, 너희는  
그분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평화의 축복으로 너희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6년 12월 25일 메시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 드립니다.

한해 동안 변함 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밝아 오는 2007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과 성모님의 사랑이  
가득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드림  
회장 남 그레고리오  
지도 신부:  
박 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 신 경남 스테파노 신부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 성모님, 어머니 마을과 모든 봉사자들을 보살펴주세요.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신부님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들의 지향을 위하여...
- 사랑하는 아들 Kevin의 종양을 치유 시켜주세요.
- 엄마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Fr. Paul Bradly 신부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투병중인 아들과 간호하시는 어머님께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 김아네스가 어릴 적 받은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데레사 자매가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아 병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의 가정을 돌보아 주세요.
- 아들이 하느님을 체험하고 교회로 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 성모님, 내적 투쟁을 통한 변화와 성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태중의 아기와 엄마가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 자녀들을 위하여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 죄인들의 회개와 불쌍한 연옥영혼들을 하나되신 성심 안에 봉헌합니다.
- OO의 암이 치유되어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 주님, 자녀들이 술과 담배를 끊고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 주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주소서.
- 성모님, 성 가정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지수 다니엘 가정을 봉헌합니다.
- 제 삶에 대한 하느님의 뜻에 겸손한 마음으로 의탁하게 해 주세요.
- 가족간의 화해와 새 사업체를 봉헌하오니 주님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 성모님, 딸의 결혼과 미래를 봉헌하오며 지혜를 청하오니 인도하여주세요.
- 예수님 성모님, 어머니의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주시고 남은 가족들이
- 더욱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보살펴주소서.
- 친정아버님이 하느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시고 시아버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성모님, 저희 가족이 한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의 충실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보살펴주소서  
세속적인 유혹과 생각에서 굳게 지켜주소서.
- 성모님, 남편과 가족들을 온전히 봉헌하오니 모든 세속적인 유혹에서 보호하여주소서.
- 성모님, 신앙 안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대녀 로사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보살펴주소서.
- 성모님, 토마스 형제가 드리는 33일 봉헌기도의 지향을 축복하시어  
은총 안에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 갈수 있도록 인도해주소서.
- 신앙의 길에서 멀리 있는 친정 식구들의 영육을 봉헌하오니 보살펴주소서.

-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미사 때와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메주고리예는 사람들의 삶을 하느님게로 돌려주는 곳

## In Medjugorje, 'people are turning to God'

해리 J. 플린 (Harry J. Flynn) 대주교  
미국 세인트 폴 - 미네아폴리스 대 교구장



1988년 루이지애나의 주교로 임명되었을 때, 나는 사도좌 방문 차 (ad limina)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알현하러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교황님은 나를 점심식사에 초대하셨는데 그 자리에는 루이지애나의 다른 주교님들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포함하여 9명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일행중의 한 분이신 베이톤 라프(Baton Rouge) 교구의 스텐리 오토 주교님이 교황님께 메주고리예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 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음식을 드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메주고리예! 메주고리예! 메주고리예! 메주고리예에서는 좋은 일만 생기지요. 메주고리예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조배를 하고, 자신들의 삶을 하느님게로 돌리는 곳 아닙니까? 메주고리예는 교회가 원하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곳이지요." 그 날 메주고리예에 대한 대화는 이렇게 끝났지만 나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메주고리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2주전인 10월 초 나는 커네티컷 주에 살고 있는 50년지기 친구인 짐 맥헤일과 함께 메주고리예를 순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 친구 부인은 뉴욕에 사는 딸의 결혼식 준비 때문에 이번 순례에 우리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로 미네아폴리스를 출발해서 네덜란드의 암스텔담과 체코의 프라하를 거쳐서 크로아티아의 스플리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메주고리예를 순례하기 전 크로아티아에 있는 아름다운 아드리아 바닷가에서 2일 동안 머물며 쉬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신다는 작은 산골마을 메주고리예에 방문한다는 것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다. 스플리트 공항을 출발해서 메주고리예로 가는 동안 아드리아 해변 길을 따라 산 위로 올라가는 꾸불꾸불한 길은 매우 위험한 것처럼 보였지만, 경치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순례길에서 미네아폴리스에서 온 스테파니를 메주고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순례객을 인솔하고 100번째로 메주고리예를 방문하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메주고리예 마을에 도착 했을 때는, 벌써 3-4만명의 순례자들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나에게서 세계 각국(각 유럽,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필리핀, 이탈리아)에서 메주고리예 성모님을 찾아 온 순례자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우리는 한 발현목격증인이 전하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가 전하는 성모님의 메시지는 매우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 때 한 순례자가 성체를 손으로 받아서 모시는 것에 대하여 발현증인에게 물어보았는데 발현증인의 대답은 간결하고 확실했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안전할 것입니다."

나에게 아주 감명 깊었던 또 하나의 체험은 매일 오후 5시부터 10시 또는 10시30분까지 고해성사를 준 것입니다. 성당 주변에서는 46명의 고해 사제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루 종일 고해를 듣고 있었습니다. 성 야고보 성당의 뜰 앞에는 26개의 고해소가 있었고 또 다른 20여명의 고해 사제들이 야외에서도 고해성사를 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길게 줄을 서서 고해성사를 기다리는 많은 순례자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일요일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도 영어로 순례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주었는데 이 시간이 나에게서 가장 큰 은총의 체험이었습니다. 나는 메주고리예를 찾아 온 순례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중심을 하느님 중심"으로 바꾸는 가장 아름답고 큰 은총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체 조배를 위한 소성당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을 흠송하고 기도하기 위해 조용히 그곳을 찾았습니다. 메주고리에 마을 곳곳에서 길이나, 발현산, 십자가산에서 만나는 모든 순례객들이 묵주를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질서 정연했고 조용했습니다.

내가 야고보 성당에서 일요일 정오 미사를 영어로 집전했을 때, 성당 안에는 발을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순례자들이 참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자리가 없어서 성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성당 밖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미사 전례에 참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심은 무척 진지하고 깊어 보였습니다.

지난 주, 우리는 안티오키아의 성 이나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을 지냈습니다. 이나시오 성인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의 깊은 내면에 흐르는 생명의 물이 말하기를 나를 주님께로 오라고 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메주고리를 방문하는 모든 순례자들의 간절한 열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깊은 내면에서 누군가가 "주님께 가까이 오라고" 간절하게 그들을 부르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메주고리에서 그들이 듣고 있는 "주님께 가까이 오라"는 그 말씀은 성모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들의 사랑과 신앙심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 안에 깊게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가 끝나는 월요일 아침, 나는 소성당에서 스테파니가 인솔하고 있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순례자들 중 많은 분들이 세인트 폴-미네아폴리스 대교구에서 왔는데 나는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강한 믿음과 대교구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메주고리에 순례 후, 나는 1988년 어느 날 식탁에서 스프를 드시면서 하셨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주고리에! 메주고리에! 메주고리에! 메주고리에에서는 좋은 일만 생기지요.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M**

- Medjugorje.org / www.spiritdaily.org에서 발췌 번역 -





## '사제들에게 주는 성체의 메시지' 번역을 마치며...

윤종식 디모데오 신부  
의정부 교구 / 로마유학 전례학 박사과정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이 메시지의 번역을 마치면서, 3년 전 처음으로 메주고리에 순례를 갔던 기억을 떠올려본다. 그때는 사제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화두인 '참된 사제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자신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었다. 성모님은 이런 나를 메주고리로 부

르셔서 용기를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한 이태리 여인을 통해 '사제들에게 주는 성체의 메시지'라는 소책자를 나에게 주시고 번역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다. 한국에 있을 때, 나는 사적 계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을 너무나 많이 접했기에 사적 계시의 성격을 지닌 이 소책자를 조심스럽게 읽어 보아야만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책을 읽다 보니 내가 성체에 대해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인격체인 예수님의 목소리로 나에게 가까이 오는 느낌을 받았다. 시간을 두고 읽을수록 처음에 지녔던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특히 참된 사제로서의 길을 갈망하며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처음 이 소책자를 번역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강한 명령형으로 표현할까 했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물질만능주의에 젖어서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당신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를 할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권유이며 간청의 말씀이라는 깨달음에서, 권유형으로 번역하니 메시지가 더욱 부드러운 말씀으로 내게 가까이 다가왔다. 예수님은 당시의 가장 유명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외딴 베들레헬을, 따스한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편안한 요람이 아닌 말구유에 누워계셨고, 화려한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쓰심으로써 스스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희생양으로서 당신을 내어 주셨다.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왕들보다 가장 힘 없고 가난한 양을 치는 목동들과 가축들의 경배를 택하신 겸손한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그 분은 우리에게 세상의 왕처럼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으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가끔씩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보여주어야 하는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제들이 왜, 기쁘게 살아가지 못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본다. 왜냐하면 사제가 주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하며 기쁘게 살아갈 때, 그 사제를 통해 보여지는 삶의 모습은 목자의 음성으로 전해져서 따라가는 양들이 기쁘게 세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깊은 신앙의 샘에서 솟아나는 기쁨의 생명수가 없다면 어떻게 영적인 목마름에 애타하는 자신의 양떼들의 목을 축여 줄 수 있을 것인가? 신앙과 믿음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기에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 누구보다 먼저 사제들이 영원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라는 샘터에 자신의 믿음과 마음을 담고고 살아야 한다.

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당신을 어떻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지를 가르쳐준다. 또한 사제의 손을 통해서 천상의 거룩한 일이 이 땅에 재현되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다. 사제로서의 참된 기쁨은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흠모하고 찬미 드림으로써 생긴다는 것을 알려준다. 모든 사제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위탁 받은 양떼를 잘 돌볼 의무와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체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삶 자체로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 오신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온 몸과 마음, 그리고 온 정성으로 겸손된 찬미와 영광을 드려야 한다. 감실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참된 사제로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감사의 성찬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성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며 활동하신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선택하시고 축성하신 모든 사제들의 손이 세상의 빵을 성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참으로 거룩하고 은혜로운 도구임을 잊지 않으며, 한 평생 기쁘게 당신을 찬미하며 나아가길 희망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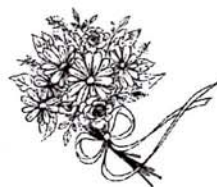
메주고리예를 다녀오고, '사제들에게 주는 성체 메시지'를 번역하면서 나의 삶은 바뀌기 시작했다. 사제로서 기도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사제는 기도해야 산다. 아니, 기도가 없는 사제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다. 메주고리예를 다녀오면서 바뀐 나의 사제로서의 삶과 생활은 기도의 중요성을 머리뿐만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살아 보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전에는 나도 갖고 싶어 했고 좋게만 보였던 고급 차와 멋진 옷들 그리고 값비싼 오디오, 사진기 등이 이제는 사제 생활에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동료 사제들에게서 자주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하느님과의 만남인 기도보다는 교회 일을 한다고 사람들과의 만남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서 지쳐있거나 마음이 산만한 사제들을 만나면 안타까움을 느낀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깨우쳐 주시며 늘 함께 기도해주시는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하는 기도의 기쁨을 생각하면, 잠시 다른 곳에 정신을 팔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한편으로는 늘 인간적인 성취감과 맛을 좇는 사람들은 영적인 맛을 내는 하느님과의 만남인 기도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무엇을 꼭 성취해야만 멋진 본당 신부, 열심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고 회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때 참된 사제, 성실한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은 이끌어 주신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신앙의 모범을 삶으로 보여 주신 성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한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교회와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믿음과 신앙의 기쁨으로 인도해주실 것이다.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서는 기도가 기쁨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 하셨다. 그렇다! 사제는 누구보다 먼저 기도해야 하고 그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 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기도를 하면 평화와 사랑이 스며드는 느낌을 체험한다. 사람은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랑을 못 느끼고 행복해하지 않는지 생각해보았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자기의 방식에 묶여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하느님 앞에서조차 인위적인 마음과 힘을 버리지 못하면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다. 믿는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식은 간단하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방식을 버리고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하시어 영과 육이 함께 하느님을 찬미, 찬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하느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우리가 그 분 앞에서 침묵하며 영육간의 쉼을 얻으며, 감사와 찬미를 드리기를 원하실 뿐이다. 기도하면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감사할 것들이 많음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찬미와 찬양을 드리게 되며 행복해 질 수 있다.

나는 메주고리예 성모님을 만나고 난 후, 보다 많은 것에 감사드리고 찬미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 그렇다고 나의 주변이 갑자기 바뀌어 진 것은 아니다. 전과 변한 것이 없지만,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감사드릴 수 있는 눈이 뜨였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성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는 모든 사제들, 수도자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상의 다른 이들도 그 행복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신앙인의 공동체를 찾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일에 충실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이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늘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일들과 사람들을 자신의 마음에 잔뜩 쌓아놓으면 행복해지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기도는 나를 비우고 하느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다. 오늘도 '말씀'과 '성체'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성모님은 예수님과 일치하여 하나의 성심으로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하신다.

"나의 자녀들아,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여라."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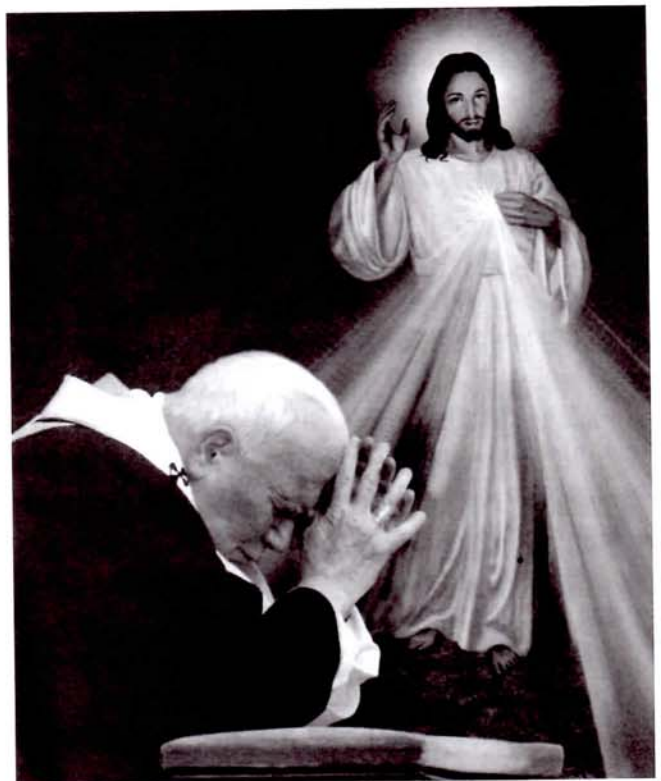
## 나의 사제들이여!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윤종식 디모데오 신부  
의정부 교구 / 로마유학 전례학 박사과정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1997년 9월 31일: 나는 자애의 탁월한 선물을 내게 봉헌된 그대들에게 주었으며 사랑의 직무를 거룩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성덕의 마음과 영으로 채웠습니다. 나는 그대들의 축성을 통해 고귀한 창조물을 만들어냅니다. 보이지 않으며 타락한 것들에서 그대들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지키십시오. 나에게 그대들 자신을 완전히 맡기면, 그대들에게 주어진 어떤 은총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대들은 영적으로 눈먼 안내자들이 되지 말고, 오히려 모든 마음을 흔들어놓고 비추어주는 빛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안내자가 되십시오. 오직 내 빛만이 심연까지 비추며 모든 상처를 완하시키고 치유시켜주어,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나의 사제들이여! 그대들은 항상 나에게 이르는 길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 나의 길은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대들의 승리를 보증하는 것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대들은 나의 삶에서 풍성한 모범을 찾고 마음 깊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부의 뜻에 대한 동참으로 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오직 일관성 있게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거룩한 삶으로 말씀이 살아있는 증거자가 되십시오. 아멘.

1997년 11월 17일: 그대들의 창조주인 나는 마음 깊은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은 오직 하늘에서만 내 사랑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대들이 이 지상에서도 이 사랑의 모든 달콤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들은 내 사랑과 하느님을 위한 사랑의 새로운 충격들로 그대들 마음 전체를 강하게 채워야 합니다. 나는 그대들의 사제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신비들과의 친밀한 일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함과 성령의 힘을 쏟아주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으로 비추임을 받은 그대들은 참되고 진실

한 성령의 빛을 발산하며 자비와 자애로운 내 사랑을 주변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대들은 마음을 비우고 지속적인 경배를 간직하고 오직 성체에 있는 내 성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무를 때 언제나 내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내 사랑만이 그대들의 삶과 마음을 변화시키어 열심한 초기 사도들처럼 그대들을 용감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완전히 나에게 소유되고, 총체적으로 나로부터 사랑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맡기는 사람과 마음속으로부터 나와 하나가 되는 사람은 어떤 부족함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들의 맑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흠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겨 있는 선물들과 함께 하느님을 전하기 위해 나는 그대들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며 찬가를 부르십시오. 나는 항상 그대들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M**





# 왜 믿으셨습니까?

마리아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갖는 것이 꿈이라 생각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사실로 생각되었습니까?  
 그런 아들을 육체적으로 낳으신 것은 신앙으로 낳는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 곧 당신의 어린아이를 보기는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길 모퉁이에서 그 아이에게 오줌을 누이시며  
 바로 그 아이, 곧 당신의 아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신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형제들인 우리만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신 생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위에서는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는 수고보다 더 큰 수고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아십니다.  
 사촌인 엘리사벳이 당신에게  
 "당신은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님!

당신은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내가 믿도록 도와 주시니 당신은 복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 탄생의 모든 신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니셨고 무한히 위대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게 드러나는 그 사건에 당신의 육신을 내놓을  
 용기를 가지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마리아님! 당신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 무한한 신비의 무게를 견뎌 내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당신의 몸을 찾으신  
 영원하신 그분의 빛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초월성이 어떻게 인간의 두려움 속에  
 강생할 수 있겠냐고 당신에게 속삭였던 사탄의 냉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쓰러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큰 용기입니다.

마리아님!

당신은 오직 당신의 겸손하심의 도움으로  
 그와 같은 빛과 어둠의 충돌을 견뎌 내실 수 있었습니다.

가롤르 가레토의 매일 묵상 중에서





## 요조신부님과 함께하는 치유의 성시간



### 미주지역 순회 강연 성모님과 함께 했던 여정을 되돌아 보며...

요조 신부님과 함께 하는 치유의 성시간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모님의 보살피심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 박프란치스카 자매님은 11월의 초겨울 날씨를 걱정하면서 성모님의 망토 색에 선교회의 이름을 새긴 따뜻한 유니폼 잠바 10개를 만들어 주셨다. 일행들은 그 유니폼을 입고 몸도 마음도 성모님 품에 안겨 있는 듯이 행복했다. 몇 달 전부터 15인승 벤을 구하고자 했으나 11월 7일이 중간선거라서 차를 구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차가 있다 해도 뉴욕으로는 못 들어 간다고 하니 휴~ 처음으로 시골에 살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났다. 이 소식을 들은 뉴저지 성당의 이 안드레아, 소피아 자매님 부부는 성모님이 쓰시는 것이라며 차와 숙소까지 기꺼이 제공해 주셨다. 또, 구입한지 5일 밖에 안된 차로 며칠 동안 차량 봉사까지 해주신 이 미카엘, 마리아 자매님 부부, 안토니오 형제와 이사벨라가 합세한 봉사 팀들은 뉴욕과 뉴저지의 일정을 모두 마칠 때까지 모두가 헌신적으로 신부님과 함께 움직였다.

요조 신부님은 성모님의 발현초기에 공산당원들로부터 성모님의 발현을 부정하라는 강한 압력을 거부하시다가 결국은 강제 노동 수용소에 1년 6개월 동안 수감되어 심한 고문을 받으셨다. 신부님은 지금도 그때 받은 고문을 생각하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몸이 떨린다고 말씀하신다. 신부님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는 넘치는 열정으로 몇 시간이라도 쉬지 않고 말씀하시지만, 제대를 내려 오시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신다. 온 몸에 혈

액 순환이 안되고 특히 팔과 다리의 통증으로 심한 고통을 받으시는 모습이 무척 안타까워 보였다. 신부님은 특히 한방 치료를 참 좋아하시는데 이번에는 뉴욕에서는 효한 한의원 원장님이, 시카고에서는 아리조나에서 오신 평화 한의원 원장님이 부황과 침으로 요조 신부님의 건강을 돌보아주셔서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신부님은 전세계를 다녀보아도 한국 사람들 처럼 신앙심이 돈독하고 마음이 따뜻한 민족은 드물다고 말씀하시며 무척 고마워 하셨다.

예수회의 피터 신부님과 전직 경찰관이며 FBI 요원이었던 미국인 친구 안토니오는 신부님과 일행들이 뉴욕에 머무는 동안 많은 보살핌과 도움을 주었다. 이번 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적인 도움을 주신 선교회의 지도신부님들과 김 알 풍소 신부님 그리고 각 지역의 신부님, 수녀님, 봉사자님들과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와 희생의 열매였다. 특별히 또 하나의 요조 신부님이 되어 한국어와 영어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통역해 주신 남 마르타, 낸시 자매님의 은혜로운 역할에 큰 박



낸시와 남 마르타 자매



수와 찬사를 드리고 싶다. 성모님께서는 그분들의 음성을 통해 참석자들의 마음에 천상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채워주셨다. 시카고에서의 행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시카고 마리아 썬타의 한 비비안나 자매님과 봉사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다시 한번 이번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11월 5일 : - JFK 공항 -**

요조 신부님과 4명의 하느님 사랑의 자녀 공동체 일행들이 탄 비행기가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JFK공항에 도착했다. 피곤한 모습이었던 신부님도 마리아 자매님이 준비한 꽃다발을 받으시고 환한 웃음으로 반가워하신다. 피터 신부님과 안토니오 형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롱 아일랜드 숙소로 떠났다. 이사벨라와 나는 다른 시간에 프랑스에서 도착한 남마르타 자매님, 시모나 수녀님과 함께 롱아일랜드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행들을 만났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모님과 함께 하는 여정에 대한 설레는 마음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꽃을 피웠다.



동부지역 봉사자들과 함께

**"엄마이신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11월 6일 : 성 아씨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낮에는 플러싱에 있는 금강산 식당에서 그 동안 선교회를 위하여 애써 주신 봉사자들이 요조 신부님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금년 53살의 안토니오 형제는 부인과 이혼하고 19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안토니오 형제는 메주고리예를 다녀 온 후 성소를 느끼고 사제가 되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 동안 많은 신학교에 입학신청서를 내고 기다려왔다고 한다.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 요조 신부님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신학교 입학 허락서를 받았다고 무척 기뻐하였다. 19살 딸이 있는 안토니오 형제의 사제가 되고자 하는 열정에 모두들 놀라면서도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

3년 전, 펜실베니아의 조용한 시골동네로 이사해 살다 보니 이제는 정말 시골 사람이 됐나 보다. 미국 생활 25년 동안 고향같이 정이 든 뉴욕이건만 오랜만에 와서 일까?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사방에서 들려오는 차량들의 소음으로 몸도 마음도 정신이 없다. 11일 동안 8곳을 방문해야 하는 행사가 시작이니 설새 없이 전화가 온다. 그 와중에 운전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던 그레고리오씨가 운전 경력 31년 만에 처음으로 신호 위반 티켓을 받았다. 밀리는 차의 홍수 속에서 간신히 맨하튼 성당근처의 주차장에 주차하고 서울가든 식당에서 요조 신부님과 평화신문 기자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맨하튼 성당의 봉사자들과 행사 준비를 의논하기 위하여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하필이면 우리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 앞 건물에 불이 나서 소방차 네 대가 바로 우리 차 앞에서 길을 막는 것이 아닌가! 맙소사... 차 안에 행사에 사용할 음향기와 모든 장비들이 있는데 움직일 수는 없고 시간은 자꾸 가고 이 일을 어찌할꼬...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차가 빠져 나갈 길은 없어 걱정하니까 그레고리오



오씨가 한마디 한다. "오늘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요조 신부님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는 날이야. 이럴 때일수록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는데 마음이 조급해지면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모든 것은 그분들이 하는 일이야." 다시 한번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도록 맡기고 기도하

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잠시 후에 소방차 한대가 길을 터 주어서 간신히 행사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성당 안은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묵주기도를 하고 있었다. 성당을 둘러 보신 요조 신부님은 첫 행사를 아름다운 벽화가 있는 아씨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념



성당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무척 기뻐하셨다. 신부님은 참석자들에게 "평화가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 각자가 가정과 공동체에 평화를 전하는 성모님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인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다." 하고 말씀하셨다. 참석자들은 신부님이 주시는 성모님 사진과 묵주를 가슴에 안고 성모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영육간의 치유 시간을 가졌다. 김기수 신부님과 봉사자님들이 헌신적으로 준비해주시며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다. 이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각 지역의 신부님들과 봉사자님들이 고생하시니 감사드리는 마음 이루 말할 수 없다. 늦은 시간 무사히 행사를 마치고 맨하튼 성당을 떠나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을 생각하니 우리는 그분들께 아무것도 해 드릴 수 없지만 성모님께서 보답해 주실 것을 믿고 화살기도를 바치며 숙소를 향해 떠났다.

**"미국은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11월 7일 : 롱 아일랜드, 기적의 메달 모후의 성당



롱 아일랜드에 있는 포인트 록 마을은 해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그곳에 도착하니 마을 입구에서부터 안토니오 형제의 연락을 받은 경찰들이 수많은 차량행렬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행사장에는 커네티컷, 메사추세츠, 뉴저지 등 뉴욕 근교에서 온 많은 사람들로 마을이 활기가 넘친다. 먼저 묵주기도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이 요조 신부님을 반갑게 맞이한다. 행사가 시작되고 이미 예정된 시간을 훨씬 초과했지만 신부님의 강력한 카리스마와 함께 전해지는 성모님의 메시지에 모두들 숨을 죽이며 듣고 있다.

"나는 미국과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성모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날의 미국은 그 옛날 청교도적인 정신을 잃어버렸으며 더 이상 기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하느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기도를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의 힘을 믿고 작고 힘 없는 이웃나라에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회개 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나라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성모님 상본에는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느님께 회심하는 길이 있습니다.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손에 묵주를 들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성모님께서서는 진실한 고백 성사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왔습니다. 기도하며 이 나라를 건설하던 때의 마음으로 돌아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은 날에 미국은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나는 하느님께서 부디 미국과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요조 신부님은 성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을 향하여 부드럽지만 거침없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셨다. 그날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미사와 성시간을 통하여 요조 신부님께서 하느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거룩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강복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회개와 더불어 미국의 앞날을 위하여 숙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일행들이 약속보다 많이 늦은 시간에 뉴저지의 이 안드레아, 소피아 자매님 댁에 도착하니, 집 앞에 불을 환하게 밝



하느님 사랑의 자녀 수도회 음악 봉사자들



히고 우리를 기다려 맞아 주셨다. 우리는 형제님과 자매님이 주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피곤을 풀고 마치 집으로 돌아 온 듯 푸근한 마음으로 폭 쉬었다. 평생 성모님의 일을 하면서 살기로 약속하고 미국 생활을 성모님께 봉헌한 체험담과 사랑을 이야기 하실 때 형제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인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구원의 방주이자 천상의 양식이고 초대입니다."**

11월 8일 : 뉴저지 성 김대건 메이플 우드 한인 성당

이번 일일 피정은 처음에는 그 동안 선교회를 위하여 애써주시는 봉사자들을 위한 소규모의 피정을 할 계획이었으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며칠 전까지도 화창할거라는 일기 예보와 달리 비바람이 부는 곳은 날씨로 예상을 초월하는 복잡한 일들도 있었다. 그러나, 조민현 본당신부님의 파격적인 배려와 베드로 수녀님, 콜베 수녀님과 많은 봉사자님들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어려움들을 처리



조민현 신부님과 함께



최 그레고리오, 레지나 자매님 부부



해 주시어 너무나 감사했다. 성당에 도착하신 요조 신부님은 제대를 보시며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당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감탄하신다. 제대 앞에는 박 프란치스카 자매님이 행사 전날 늦은 시간까지 정성스럽게 꾸민 꽃꽂이와 화관을 쓰고 계신 성모님이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울리며 아름답게 모셔져 있었다. 요조 신부님은 이 성당을 보니 한국 신자들이 얼마나 지극한 마음과 정성으로 교회와 성모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며 마음이 몽클하다고 두 손으로 가슴을 쓸어 안으셨다.

잠시 후, 신부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묵주 기도의 묵상과 말씀, 성시간을 봉헌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하는 은혜로운 일일 피정의 하루를 시작했다. 예정된 일정은 아니었지만 요조 신부님의 권유로 최 레지나 자매님과 윤경만 형제님의 메주고리에 체험담 나눔이 있었다. 소녀시절 수녀가 되고 싶었다는 레지나 자매님은 2005년 11월 메주고리에 순례를 가기 전까지는 남편과 함께 온가족이 열심히 개신교 신자였다. 메주고리에에서 요조 신부님의 4박5일 피정에 참석한 자매님은 그 당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다. 메주고리에에서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체험한후 성모님상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간 자매님은 7개월 만에 천주교 세례를 받았다. 남편은 25년 전에 천주교 세례를 받았으나 1년 만에 냉담하고 그 동안 개신교 신자로 지내왔었다. 금년 6월에 있었던 윤종식 신부님으로부터 전례피정을 한 후, 25년 만에 고해성사를 보고 지금은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천주교와 성모님께 대해 생소한 것이 많아서 더 배우고자 한다는 형제님의 나눔이 있었다. 또한 멀리 LA에서 온 윤 야고보 형제님은 메주고리에 순례와 성시간을 통하여 성모님과 함께 하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알게 된 자신의 체험담을 나누어 주었다.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대표로 묵주기도를 선창해 주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체리힐의 장 로사 자매님은 요조



신부님과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기금마련을 위하여 아름다운 크리스탈 목주를 많이 만들어 주셨다. 봉사자들은 예상을 초월한 인원들을 감당하느라 동분서주하는 힘든 중에도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이 날 신부님의 말씀을 대강 요약해보았다. "오늘날 이 시대는 기도하는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랑 신부가 결혼서약을 할 때 십자가를 서로 잡고서 자신들의 결혼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그들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신들의 결혼을 봉헌한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결혼과 이혼이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원인은 가정에 기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신앙을 말하지만 신앙과 믿음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신앙을 배울 수도 없고, 더불어 기도의 힘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니다. 부모가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모든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느님께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심을 기억하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주시는 메시지들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갑시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주이자 천상의 양식이고 초대입니다."

신부님은 미사 후 성시간 때는 제대 앞에서 아픈 무릎을 꿇고 신앙과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위



53세 나이로 신학교를 가는 안토니오 형제와 남마르따 자매, 이사벨라, 이 안드레아, 소피아 자매님 부부와 함께 뉴약공항에서

하여 기도하셨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신부님의 모습은 물질과 쾌락에 젖어서 멸망해 가는 소돔성을 위하여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만이라도... 하고 하느님께 간절히 매달리던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성체거동 때에는 영육간의 치유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참석자들에게 정성을 다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축복을 전해 주셨다. 성모님께서서는 메시지에서 단식만으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일행들은 힘든 와중에도 수요일은 단식 날이라며 모두가 빵과 물만으로 식사를 대신했다. 하루 종일 바쁘다 보니 식사를 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지만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고 했다.

###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

11월 9일 : 피츠버그의 성 요한과 바오로 성당



피츠버그 봉사자 케티 집에서 점심식사 후 ..

아침에 이 안드레아, 소피아 부부님이 우리를 뉴약 공항까지 데려다 주셨다. 소피아 자매님은 요조 신부님과 이웃 아저씨같이 편하다고 한다. 일행들은 요조 신부님과 기념 사진을 찍고 공항 안으로 들어 갔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신부님을 경호하던 경찰들이 항공사 직원들이 신부님을 알아보고 기도를 받으러 왔다.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곧 고백성사를 보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 성사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눈물을 흘렸다. 곧이어 조종사가 신부님의 안수를 받고 눈물이 글썽이는 얼굴로 기념 사진을 찍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메주고리예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한다. 낸시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열심히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일행들은 어디를 가든지 잠시라



도 시간이 나면 성모님 메시지를 전한다.

피츠버그에 도착해서 봉사자 케티가 마련한 점심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오후에 행사장에 도착하니 성당입구에 티할리나 성모님이 모셔져 있었다.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 반가운 마음에 성모님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성당에도 메주고리예를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은 듯 성당이 좁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닥에까지 앉았다. 거룩한 미사와 성 시간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로 가득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손을 꼭 잡고 요조 신부님을 미국에 초대해주어 고맙다고 인사한다.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S자매님은 요조 신부님을 만나기 위해 5명의 아이들과 어머니를 모시고 5시간을 예상하고 오던 중 길을 잃어 결국 7시간 만에 행사가 끝난 후에야 도착했다. 그레고리오 형제는 S자매님을 여자 자캐오라고 불렀다. 이미 요조 신부님은 숙소로 돌아가셨지만 먼 길을 달려온 자캐오 자매님을 그냥 돌아가게 할 수는 없었다. 함께 숙소로 가서 낸시가 잠이 드신 요조 신부님을 깨워서 자매님 가족들에게 축복의 안수를 받게 했다. 이미 늦은 저녁이라서 새벽이 되어야 집에 도착 할 것 같지만 행복한 얼굴로 떠나는 자캐오 자매님에게 손을 흔들며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도했다.

행사를 끝낸 12명의 일행들은 모두 배가 고파 맛있는 저녁을 기다렸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아이쿠! 이게 웬일인가? 케티는 늦은 점심식사를 저녁까지 해결 된 것으로 생각했는지 식사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일을 어찌하랴... 모두 배고픈 눈빛으로 그레고리오씨 얼굴만 쳐다본다. 피자라도 시키려고 했지만 배달시간이 지났다고 하니 그레고리오씨는 난감한 얼굴이다. 그때 영어 통역사로 함께 다니는 낸시가 기지를 발휘해서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얼마 후에 낸시 친구들이 홈메이드 햄버거를 잔뜩 만들어 왔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한국의 옛말은 음식이 풍부한 미국에서도 변하지 않는 명언이었다. 평소 식성이 까다로운 멜린다를 포함하여 모두들 정신 없이 맛있게 먹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매사에 감사하고 기쁘기만 하다. 일행들은 내일이면 또 시카고로 떠나기 위하여 다시 짐을 꾸려야 하지만 매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누군가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쁨을 조금은 알 것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요조 신부님이 모세이고 와~ 우리는 선택된 민족인가!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주던 불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해주는 불기둥은 무엇일까? 당연히 성모님이시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현존하심을 알려주는 불기둥이 되시어 각 지역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신다. 발현 초기에 6명의 목격증인인 어린아이들이 성모님께 물어보았다. "왜 메주고리예에 발현하셨나요?" "나는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고 왔다."

#### 11월 10일 : 시카고 도착

10일, 시카고 공항에 도착했다. 성모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는 최 로사 자매, 윤 데레사 자매, 손 헬레나 자매와 빌과 팀을 만나 무척 반가웠다. 빌과 팀은 우리 일행을 위해 차량봉사와 숙소를 준비했다고 한다. 호텔에 도착하니 와~ 너무 최고급 호텔이라서 깜짝 놀랐다. 호화로운 호텔 내부를 둘러 보면서 경비를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불편하다. '아니, 이 사람들은 우리들이 관광여행을 다니고 있는지 아냐? 12명이 다녀야 하니 절약을 해도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서 5400명의 고아들을 도와야 할게 아닌가? 더구나 이런 호텔은 우리가 일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불편해 하는 마음을 알았는지 낸시가 나를 꼭 안아 주었다. "그 마음 잘 알아요. 성모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 일행이 빌에게는 너무나 귀한 손님이라서 모든 비용은 전부 빌이 지불한대요. 특히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신 성모님과 요조 신부님께 드리는 작은 감사의 표시래요. 나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지만 빌이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모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니 부담스러워 하기 보다는 마음 편하게 폭 쉬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했다. 낸시에게 빌과 팀의 이야기를 들



오니 그들의 마음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다. 메주고리에 성모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동서를 막론하고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 되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감동스러운 마음에 꼭 그들의 체험담을 소식지에 실어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다.

**"메주고리에는 장소가 아니라  
정신이고 운동입니다"**

11월 11일 : Devine World In Conference Center

아침에 피정 장소에 오신 신부님은 아름다운 성당의 내부를 보고 무척 기뻐하시면서 이곳을 허락해 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셨다. 최 로사 자매님과 윤 데레사 자매님이 이 장소가 정해질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근처 한인성당에서 하려고 했으나 장소가 좁아서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했다. 그때 이곳이 생각났지만 워낙 유명한 곳이라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고 더구나 토요일 5시 30분에 미사가 있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됐다. 성모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알아 보니 오직 그날 하루만 예약이 없었으며 더구나 바로 얼마 전부터 토요일 특전미사가 없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은 성모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오는 했지만 준비하는 과정에 어려움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먼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카고까지 오겠다는 형제님의 전화를 받고 더욱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용기가 생겼다고 한다.

당일 피정이 시작되자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었다. 봉사자들은 캐나다를 비롯한 12개



Divine World In Conference Center

가 넘는 먼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성모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더 큰 장소를 준비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요조 신부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았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청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왔습니다. 그분은 25년 4개월 동안이나 하느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셔서,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루 빨리 하느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목주를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문제의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목주기도는 신랑을 기다리던 지혜로운 처녀들이 준비해두었던 한 방울의 기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시는 성모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느님은 성모님이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에 있었던 내전으로 많은 성당과 수녀원, 마을들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발생한 그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당연





히 힘 없고 약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길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왜 집에 가지 않고 길에서 울고 있다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은 울면서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우리들은 돌아 갈 집도 부모님도 없어요. 자고 싶은데 잘 곳도 없고, 배가 고프지만 오늘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는 아이들의 눈물에서 성모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내가 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성모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살아가라고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5400명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그레고리오 형제님에게도 감사 드리고 싶



김 알폰소 신부님과 요조 신부님

습니다. 이 형제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과 고아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를 통하여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정성에 대하여도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씨앗을 심어 주십니다. 그 씨앗은 삶을 기도로 변화시키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교회와 공동체, 가정과 가족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선한 열매를 맺어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메주고리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정신이고 운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메주고리에는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여러분의 마음과 삶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모님의 마음과 눈으로 주변을 바라본다면 일상의 삶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혹은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보일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라고 대답하기 힘든 큰 일일지도 모르고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성모님처럼 기꺼이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하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응답입니다. 나머지는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창우는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아였고 부모님들은 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창우를 메주고리예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지내고 있을 때 창우의 엄마는 누군가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베~아베~ 아베마리아 그 엄마가 뒤를 돌아 보았을 때 창우는 장난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베~아베~ 지금 창우는 한국에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작년 11월 나와 함께 피정을 한 자매님이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남편과 이혼하기 직전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메주고리예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메주고리예를 전하기 위하여 일년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성모님의 품 안에서 쉬고 오라고 메주고리 예로 보냈습니다. 잠시 후 이 부부가 성모님을 알고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조 신부님의 체험담은 하나 하나가 마치 모든 과정을 마치고 형성된 은총과 축복의 결정체를 보고 듣는 것 같다. 정말 시간 가는 것이 아쉽고 그 말씀 안에 함께 하시는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마음 깊이 체험하며 행복했다. 성모님께서 어머니의 품을 찾아 온 자녀들의 손을 잡고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다. 다음은 메주고리예 소식지 35호의 나눔터에 기재되었던 이 토마스, 세실리아 부부가 성모님을 알고부터 변화된 가정에 대해 나누었던 체험담의 요약이다.

"그 동안 서로 쳐다 보기만해도 큰소리가 나고 서로를



타하고 불화뿐이었던 우리부부가 성모님을 알고부터 기도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이 함께 기도해주시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도구가 되어 우리 부부가 예수님과 성모님께 받은 축복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은 우리가



이토마스와 세실리아 부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우리 부부가 다투는 불화의 원인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허물과 부족함을 탓하지 말고 받아주고 이해하며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부부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행복합니다. 지금은 하루가 아무리 피곤해도 저녁이면 온 식구들이 모여서 묵주기도를 꼭 합니다. 어려운 현실은 똑같지만 우리 부부가 변화되니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고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모님 때문임을 잘 알기에 앞으로 우리 부부의 소망은 성모님의 뜻에 순명하면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잠

시 지나갈 것이며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과 성모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 25년 동안의 알코올중독에서 치유 받은 빌과 팀의 체험담

11월 12일 : Holiday Inn Convention Center



시카고 봉사자 빌과 팀

영어권의 일일 피정은 일요일이고 참석자가 많아서 일반 성당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호텔을 빌렸는데 2000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어제 만났던 빌이 묵주기도를

인도했다. 빌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말하듯이 평온하지만 굳은 믿음과 신뢰를 느끼게 한다. 어디를 가나 느끼는 것이지만 이제 메주고리에 조용하지만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고 흐름이다. 성모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겸손하고 교회에 대한 순명정신이 강하다. 부드럽고 약한 것 같지만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마치 성모님이 어떻게 살아 가셨는지를 느끼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면 무리일까? 요조 신부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하는 강의와 다르다. 세상에 젖어 살아 가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소중한 물질과 야망을 버리라고 하니 따분하고 흥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믿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신부님이 전하는 성모님의 메시지에서 마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을 마시는 것과 같은 안식과 자유를 만끽한다.

이 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강의와 더불어 미사와 성 시간에 쏟아지는 은총들은 목마른 사람들의 영육을 충분히 적셔주었다. 프란치스코회의 시카고 관구장 신부님은 강론 중에 '어린 시절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의 일과를 끝낼 수 없었으며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기도를 시작하지 않고 기다려야



성체의 축복이 함께하는 성시간





시카고 봉사자 최로사, 윤데레사, 남 마르타 자매와 함께한 편집인

했다. 주일날 한 시간도 안 되는 미사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다. 마리아회 수도원 원장 신부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부님들이 하루 일정에 함께 해 주셨다.

다음은 빌과 팀이 들려준 체험담이다. 빌은 전국에 오피스를 갖고 있는 전문 경매가이고, 부인은 시카고 제네랄 병원의 원장이며, 동시에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유명한 의사이다. 빌과 팀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5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들의 부모들은 매사를 서로 탓하고 불신하며 싸우느라고 가족들을 돌보아 줄 겨를이 없었다. 아이들은 평화와 사랑이 없는 가정에서 부모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거침 없이 오가는 아픈 말들을 듣고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야 했으니 당연히 신앙이나 믿음과는 거리가 먼 환경이었다. 빌과 팀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두려웠으며 마치 지옥에서 살았던 것과 같았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변함없는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자 술과 담배에 의지하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새롭게 살아가 노력했으나 성장과정에서 받은 깊은 상처는 그들에게 악습을 남겨 주었다. 그들은 결국 그렇기도 혐오하던 부모님들의 삶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도 똑같이 재현되어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알코올 중독자 재활원에도 갔었으나 그때뿐이었다.

어느 날 가족들과 친구들의 권유로 메주고리예를 갔다. 잠시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도착한 메주고리예는 그토록 갈망하고 그리워하던 엄마의 따뜻한 품속이었다. 엄마이신 성모님은 상처받은 그들을 감싸 안으시며 위로 해 주셨다.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가 요조 신부님의

피정에 참석해서 자신들의 상처와 잘못된 삶때문에 성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알고 며칠을 계속 울고만 지냈다. 성모님은 요조 신부님을 통해 그들의 알코올 중독을 치유해 주셨으며 술만 아니라 담배까지 끊게 해 주셨다. 가족들은 마치 깊은 늪에 빠진 것처럼 술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그들이 메주고리예를 가기 전에는 희망이 없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루 하루를 정상인으로 살아 가는 모습은 기적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빌과 팀은 그 때부터 메주고리예 성모님 때문에 자신들이 새로 태어났으니 순례를 간 그 날이 자신들의 새롭게 태어난 진짜 생일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 날이 되면 함께 모여서 생일파티를 연다고 한다.

빌 부부는 무척 큰 집과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물질의 주인은 예수님과 성모님이라서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쓰실 것이고 자신들은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며 활짝 웃는 부부의 모습이 한없이 행복해 보인다. 이제는 부모님을 용서했는지와 언제쯤 메주고리예를 다시 갈 것인지 물어 보자 빌은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어휴~ 당연히 가고 싶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그리운 곳이지요. 그런데 지난 번 그곳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번에 가면 또 얼마나 울어야 하는지 겁나네요. 하지만 다음에는 메주고리예에서 좀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요. 그곳은 너무나 평화스러운 곳이잖아요. 집에서 메주고리예를 생각하면 마치 엄마의 품에 안겨서 푹 쉬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만족





해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말인가요? 우리엄마는 아직도 가슴이 섬뜩할 정도로 아프게 말해요. 변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마다 마음 아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 묵주기도를 해요. 그분들은 나를 낳아 주신 부모님들이고 이제 우리 부모님은 늙으셨잖아요. 지금은 내가 그분들을 사랑해드릴 때라는 것을 알아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나는 때가 되면 예수님과 성모님이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어요. 성모님은 우리 부모님과 나의 어머니이시니까 우리 가정도 모두 그분께 맡겼어요." 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빌이 항상 밝고 명랑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옆에서 듣고 있던 팀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메주고리예를 갔다 온 후 제일 먼



시카고 봉사자들과 함께

저 빌을 데리고 메주고리예를 다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며칠을 옮기만 하던 빌이 나에게 항의했어요. 메주고리예에 오면 이렇게 많이 운다는 것을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빌과 팀은 서로를 바라보고 한바탕 웃는다. 팀은 미주 전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전문 변호사이다. 팀은 알코올 중독을 치유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이웃들과 함께 매주 평화의 모후 기도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빌과 팀은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자신들은 어머니이신 성모님 안에 있는 한 가족임을 강조하며 선교회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함께 하겠으니 용기를 내고 성모님의 일을 하라고 격려해주었다.

### 메주고리예 가족들과의 만남

11월 13일 : 플로리다, 마이애미

공항에 도착하니 요조 신부님과 우리 일행을 환영하



마이애미 봉사자 메리와 함께(요조신부님 옆)

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메리와 봉사자들이 반갑게 맞이한다.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 봉사자들의 메주고리에 성모님께 대한 체험은 어떤 것인지 궁금했다. 봉사자들의 체험은 가는 곳마다 달랐지만 그 감동은 세속의 유혹을 뿌리치고 미래를 믿으며 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

도착한 날 영어를 하는 히스패닉 교우 400명이 참석한 요조 신부님과의 저녁식사 시간이 있었다. 요조 신부님은 곧 메주고리예의 상징인데 그곳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400명이나 함께 모였으니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적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 같아 생략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신부님 앞에 변화된 사람들의 감사 편지와 축성을 받으려는 성물들이 끊임 없이 놓여져서 식사할 시간도 없으시다. 잠시 후, 요조 신부님의 인사 말씀을 낸시가 영어로 통역하면 헤르난데즈 신부님이 한쪽에서 스페인어로 다시 통역을 해 주셨다. 얼굴에 늘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헤르난데즈 신부님은 성모님 때문에 사제가 되신 메주고리예의 열매이다. 멜린다가 스페인어로 메주고리예 음악을 설명하는데 참 잘한다. 음악과 노래



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에도 재주가 많은 것 같다. 멜린다와 롤랜, 이반이 연주하는 음악에 맞추어 메주고리예 성가를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마치 메주고리예를 옮겨 놓은 것 같다. 일어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미 시간이 10시를 가리킨다. 서로 내일 저녁의 만남을 기약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 메주고리에 나무에서 열린 아름다운 열매들

11월 14일 : 마이애미 성 베네딕도 성당



변호사에서 사제가 되신 헤르난데즈 신부님과 함께

아침에 마리아 부부의 초대를 받아 바닷가에 갔다. 바다를 바라보시는 요조신부님이 무척 즐거워하신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하여 도착한 마리아의 집은 무척 크고 넓었으며 내부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수영장도 있었다. 마리아 부부의 체험담이다. 그들은 2남2녀를 두고 있는데 큰 아들은 장애아이고 두 딸아이는 러시아에서 입양한 아이란다. 두 부부는 큰 아들의 장애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메주고리에를 갔다. 그곳에서 자신들이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그 동안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 왔다는 것을 깨닫고 무척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깨달은 것을 이야기 하고 성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지향으로 함께 묵주기도를 시작했다.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이웃에 살고 있는 러시아사람에게 부모가 없는 어린 자매가 양부모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마리아 부부는 그 소식이 자신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두 자매를 입양했다. 티 없이 밝게 자라는 두 자매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응접실에는 아이들이 세례 받을 때 천사처럼 하얀 옷을 예쁘게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다. 마리아 부부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 이제야 자신들도 하느님께 받은 은총과 축복을 나누면서 살게 되어 행복하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한다. 마리아 부부는 성모님을 알기 전 장애아인 아들이 자신들과 가족들을 부끄럽게 하고 괴롭히는 고통과 시련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성모님을 알고부

터 그 아이는 하느님께서 자기 부부에게 믿고 맡겨 주신 선물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는 그 아이보다 자신들이 더 큰 장애자였음을 이제는 안다고 했다. 오히려 아들의 장애는 물질에 젖어 살아가는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허락된 희생제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얼굴에는 감사와 평화의 미소로 가득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체험이 있기에 그녀가 그런 말을 하기 전까지 겪었을 고통과 지금의 평화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사람은 시련을 겪으면 강해진다고 한다. 더구나 그 시련을 통해 하늘나라의 신비와 성모님을 체험했으니 무엇이 두려울까? 마리아에게 우리 체험을 이야기 하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 우리는 서로에게 있는 과거의 이쁨과 오늘 누리는 평화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저녁도 성당이 좁을 정도로1200명은 족히 넘는 성황을 이루었다. 낸시의 영어 통역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부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과 느낌을 똑같이 전해 주는 것으로 유명 하다. 제대 옆에 메주고리에 성모님이 모셔진 사연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 성당의 헤르난데즈 신부님은 사제가 되기 전에는 변호사였다. 그런데 메주고리에에서 요조 신부님의 피정에 참석한 후, 사제가 되고 싶은 강한 열망으로 집으로 돌아 온 후 바로 신학교를 갔단다. 그리고 본당 신부로 부임하실 때 제일먼저 메주고리에 성모님을 제대에 모셨단다. 당신이 사제가 되어서 오늘 요조 신부님과 함께 제대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하며 미사를 하는 중에도 신부님을 바라보고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평소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번 행사를 하면서 더욱 느낀 것은 성모님을 사랑하는 신부님들은 사제직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한결같이 헌신적 이고 겸손하다는 것이다.



헤르난데즈 신부님의 성당



이곳의 봉사자 메리는 메주고리에와 요조 신부님을 통해 특별한 은총을 체험했다. 메리는 다섯 명의 자녀와 손자 손녀 8명을 둔 금년 65세의 할머니이다. 아침에 메리는 예쁜 여자 아이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내 손녀인데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아로 걷지도 앉지도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메주고리에에서 요조 신부님의 안수를 받은 열흘 후부터 걷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예쁜 아이인지!" 메리는 남은 평생을 성모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

메리의 이웃에 살고 있는 패티와 안드레아가 장애아 아이들을 안고 요조 신부님을 만나러 왔다. 그 부부는 아이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다. 어느 날 메주고리에 순례를 갔을 때 성모님과 예수님을 체험한 패티 부부는 자신의 아이를 예수님과 성모님께 봉헌하고 모든 것을 현실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현재 임신 중인 패티는 태중의 아이가 정상아인지 가끔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그럴 때마다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면 성모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주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나는 패티 부부에게 우리 막내 아들 크리스에 대한 이야기와 그 동안 크리스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변화된 이야기와 지금은 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하루하루가 정말 기쁘고 감사드릴 수 밖에 없다는 체험을 들려 주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성모님을 통하여 하느님과 예수님께 다 봉헌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었다. 나는 패티 부부의 두려움과 고통은 바로 우리들의 고통이었기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지내는지 너무나 잘 알 것 같았다. 믿음으로 하루 하루를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묵주를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두려운지 잘 알고 있다.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꼭 안고 기도해 주었다. '아기야, 걱정하지마. 너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패티 부부와 우리는 서로 기억하며 기도 중에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패티에게 우리 크리스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항상 우리 곁에서 보살펴 주시는 성모님은 얼마나 좋으신 어머니이신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성모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느님과 예수님, 성모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처럼 그분들께서도 우리들을 사랑해주시고 믿고

계심이 느껴진다. 정말 그 분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하여 봉헌하고 잘 살아 보고 싶다.

### "늘 여러분들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11월 15일 : 성 정하상 마이애미 한인성당

오전 10시경에 마지막 행사를 하기 위하여 마이애미 한인 성당에 도착 했다. 본당 신부님과 교우들이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아담한 성당 안에는 100명이 채 안 되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봉사자 서 그라시아 자매님이 올랜드와 템파 성당에서도 새벽에 출발해서 왔다고 말해 주었다. 함께 순례를 했던 형제 자매님의 반가운 얼굴이 보인다. 요조 신부님은 "이번 일정 중에 가장 작은 숫자의 형제 자매님들이 모였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메주고리에 작은 마을에서 발현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교회를 사랑하고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제가 없으면 성체성사를 할 수가 없고 고해성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제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꼭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담아주시시오. 성모님은 여러분의 어머니 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감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모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성당의 신부님은 마음이 열리신 분 같습니다. 이런 신부님과 여



요조신부님에게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시는 요조신부님



러분들이 함께 목주를 들고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모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만남을 도와 주시는 어머니이십니다. 저는 한국 교회와 여러분들을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정말 너무나 사랑합니다. 제가 메주고리예로 돌아가더라도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성모님의 처음 발현이 있었듯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성모님 발현이 끝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성모님이 메주고리예에 발현하실 때, 그곳에 있었노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메주고리예라는 작은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와서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도 남 마르타 자매님의 은혜로운 통역은 신부님의 말씀을 성모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었다. 곧이어 미사와 은총의 성시간으로 아쉬운 마지막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마이애미 공동체와 요조 신부님의 짧은 만남이

있지만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본당신부님과 서그라시아 자매님, 이 토마스 형제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 동안 꿈 같은 시간이 지나고 마이애미 공항을 향하여 출발하면서 헤어지는 아쉬움으로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린다. 시카고에서 최 로사 자매님과 윤 테레사 자매님이 왜 울었는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요조 신부님은 이번 일정이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기에 감사 드린다고 말씀하셨다. 남그레고리오 형제에게는 성모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함께 하고 계시니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성모님의 일을 하자고 하시면서 항상 기도 중에 함께 하겠다고 용기를 주셨다. 일행들을 보내고 로사 자매와 이 토마스 형제 가족과 저녁을 먹고 헤어졌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 가족이었고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정말 꿈 같이 행복했던 시간은 끝나고, 이제 현실로 돌아 왔으니 성모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통하여 그 동안 우리가 받은 은총과 축복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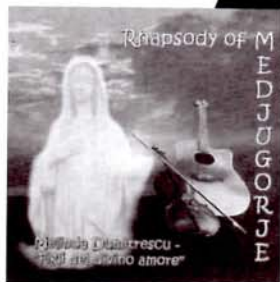
##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이 음악에는 성모님과 함께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흠송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성시간 노래와 음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노래와 음악들이 간단한 가사와 짧고 반복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흠송과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과 단체 성시간, 그리고 각종 피정과 교육시 유용한 음악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당합니다.



번역/ 신경남신부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평화의 모후이신 우리의 어머니 복되신 성모님께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 신부 신경남 스테파노 -

- 옥수동 성당의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고리에 서적 보급
- 슬라브코 신부님의 책 '성시간' 마음을 다해 내 아들을 흠송하여라'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오로 딸 및 성바오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캐나다 : 이 테레사 (403-288-0469),



## 믿은 이들의 어머니인 동정 마리아

"가톨릭 교회의 전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로마의 (학교이름) 에서 전례학 박사과정을 수료 중이신 윤종식 신부님이 연재해주실 "전례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모 마리아"는 독자들에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밀접한 관계는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정통 가르침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큰 은총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지면을 통하여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 고리에'가 독자들과 가톨릭 교회와 성모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충실한 도구가 되고자 하는 사명을 새롭게 해봅니다. 늘 선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도해주시는 윤 종식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남 흥익 그레고리오 본지 편집인 -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성모님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1858년 프랑스의 루르드에서부터 메주고리에까지 수많은 지역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셨고, 메시지를 통하여 성체성사와 성모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교회와 역대의 여러 교황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모님의 수많은 발현과 관련되어 사적 계시 또한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참된 성모 공경으로 신자들을 이끌어야 할 과제가 교회의 사목자들에게 요청되고 있다. 이 지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전례에서 행하고 있는 성모 축일들을 통하여 성모님께 대한 믿을 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공경해야 하며, 우리의 삶에서 성모님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를 나누고자 한다.

전례에서 그리스도의 모친에 대한 기념제들은 강생에서부터 영광스러운 재림의 기대에 이르기까지, 구세주

그리스도 신비의 전 과정이 한 해를 주기로 하여 조화있게 구성하여 전례주년의 시기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치되고 있다.(마리아 공경 2항)1) 이는 두 가지 큰 기준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동정 마리아는 그 아드님이시며 우리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생, 수난, 죽음, 부활의 구원의 신비로 실현된 하느님과 인간의 통교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마리아를 만나기 때문에 성모 공경은 당연히 그리스도 생애의 신비와 연결되어 배치되어 있다. 둘째, 교회의 어머니이시요 딸이시며, 교회의 모습이며 모범이신 마리아는 구원된 이들의 공동체의 만이이자 완전한 표상이시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마리아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서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부름을 받았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8일)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과 구세주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을 주제로 하는 대림시기에 위치하고 있다. 마리아의 원죄 없으심에 대한 믿음은 '거룩한 분'을 잉태하신 분은 어떤 죄도 없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8세기 초반부터 동방 교회에서는 '마리아의 탄신' (6세기부터 9월 8일에 지냄)과 연관하여 12월 9일에 '하느님의 어머니' (Theotokos)의 어머니 성녀 안나의 잉태 축일을 지냈다. 10-11세기에 영국에서는 12월 8일에 동정인신 성모 마리아의 잉태 축일을 지냈다. 13세기에 들어와서 프란치스코회 회원들은 1263년 총회에서 이 축일을 프란치스코회 전체의 축일로 정하면서 확산되었다. 1439년에는 바실레아 공의회에서 이 축일을 온 교회에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프란치스코회 출신인 교황 식스토 5세는 1476년 이 축일을 로마 달력에 삽입하고 미사와 성무일도를 위한 전례 문구들을 인준하였다. 1854년 12월 8일 비오 9세는 칙서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 (Ineffabilis Deus)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의 어머니이시요 딸이시며, 교회의 모습이며  
모범이신 마리아는 구원된 이들의 공동체의 말이자 완전한 표상이다.

장엄하게 선포하였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잉태되는 첫 순간에 전능하신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은총과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원죄에 전혀 물들지 않고 보존되셨다." 3) 그로부터 4년 후, 1858년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작은 마을, 루르드에서 성모님께서 벨라뎃다에게 발현하셨다. 그리고 마치 새로운 교의에 대해서 환영의 인사를 전하시듯 당신 자신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다.

"오 하느님, 저희는 놀라운 당신의 사랑을 목상하였나이다."라고 화답송의 후렴을 노래하면서 신자들은 마리아를 원죄 없으신 분으로 준비시키신 삼위일체의 무한한 사랑을 경축한다. 인류에 대한 구원계획의 첫 순간부터 마리아를 준비시키는 하느님이 주인공이다. 이 축일에 교회는 주님 탄생 예고의 복음을 선포한다.(루카 1, 26-38) 이 복음에서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안에 잉태되셨음'을 이야기한다. 하느님은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셨다. 사도 바오로는 이러한 신적 계획을 이렇게 표현했다.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제2독서 에페1,3-6,11-12). 하느님의 구원 계획안에 우리는 존재하고 동정 마리아도 그 안에서 준비되었음을 교회는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다.4)

이렇게 원죄 없이 잉태하셔서 티없이 살아가신 동정 마리아의 삶을 믿음과 신앙의 모범으로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례성사를 통하여 원죄를 씻고 주님의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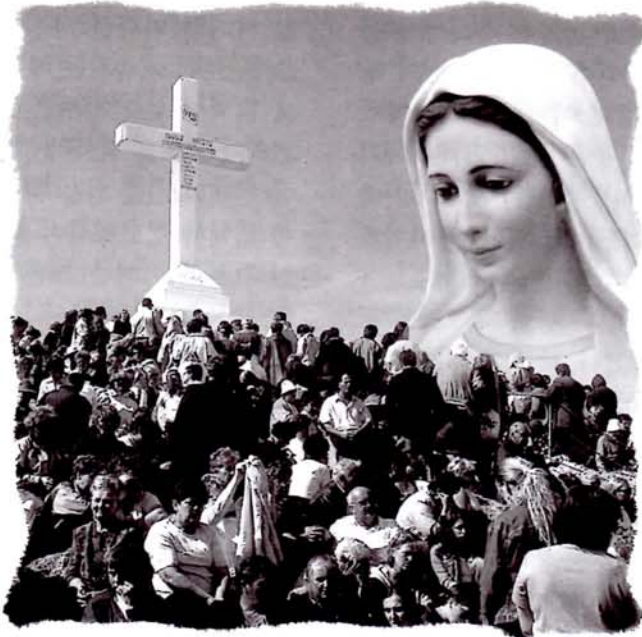
로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다면 대림시기에 구세주를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동정 마리아처럼 참된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시기에 단식과 절제, 그리고 기도와 자선 행위를 강조하였다. 단식과 절제는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고, 하느

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세로 자선 행위로 옮길 수 있는 기본 조건이며, 여유분이 아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자선 행위는 보화를 하늘에 쌓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기도는 구세주를 맞이하는 자신의 영적인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쇠신시키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회는 성탄시기 중에 "천주의 모친 대축일" (1월 1일)을 통해 "동정의 순결한 몸으로 구세주를 이 세상에 낳으신" 5) 마리아의 신적이고 구원적이며 순결

하신 모성을 기념한다.

동정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 되심'은 마리아께서 여신이심을 뜻하지 않고, 그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신성 때문이라는 사실을 에페소 공의회(431년)에서 명확하게 선포하였다.6) 교회에서 동정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 (Theotokos)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깊은 성찰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훗날 칼케돈 공의회 (451년)는 이를 재확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재확인하였다.7) 1월1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밀접히 연관되어 '성 마리아의 탄신'이라 불린 대축일이 6세기 중반에 로마에서 생겨났다. 이 축일은 로마 전례에서 지낸 첫 마리아 축일이며 순교자들의 성모 성당에





서 거행되었고 복되신 동정녀의 신적 모성을 기념하였다. 이 축일은 7세기에 '할레와 예수님의 성명' 축일로 바뀌었다.

1932년 비오 11세가 에페소 공의회 개최 15세기를 기념하면서 '복되신 동정녀의 모성' 축일을 도입하고 10월 11일을 축일로 정했다. 1969년 로마 전례력의 개정과 더불어 다시 1월1일을 마리아 축일로 정하고 축일의 명칭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정했다.8)

교회는 성탄 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와 밀접히 연결하여 마리아의 근본적인 특권을 기념하게 한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독생 성자만이 참으로 우리를 동정녀 어머니의 신비애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복음서 본문(루카 2,16-21)은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었고 목자들이 아기를 보고 아기에 관해 들은 말을 이야기했으며 여드레째 되는 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고 전한다. 이는 제2독서(갈라 4,4-7)의 "때가 찾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는 사도 바오로의 고백과 함께 연결된다. 즉, 파스카의 신비는 동정녀인 '여자의 몸'에서 시작되었다. 목자들은 이 신비를 알아보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루카 2,17-18 참조). 제2독서에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시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습니다" (갈라 4,4-5)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아드님의 탄생이 사람의 아들들의 '새 탄생'을 말하는 표시라고 말해주고 있다.

교회는 이 성탄시기에서 성탄 후 8일째 되는 새해 첫 날을 평화의 날로 정했으며, 천주의 모친 대축일을 지낸다. 이날은 천주의 모친이신 동정 마리아가 세계 평화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981년부터 계속되는 메주고리예에서의 '평화의 모후'라고 밝히신 성모 발현은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회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신다. 루르드에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임을 밝히시고 파티마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고하시며 회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제는 작은 산골 마을 메주고리예에 발현하시어 세상의 평화와 모든 이들의 평화를 외치시며 참된 회개를 요청하신다. 이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원하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임을 거듭 밝히고 있으시다. 교회는 이날, 평화의 모후를 통하여 하느님께 평화의 고귀한 선물을 청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신앙인들에게 요청한다.9)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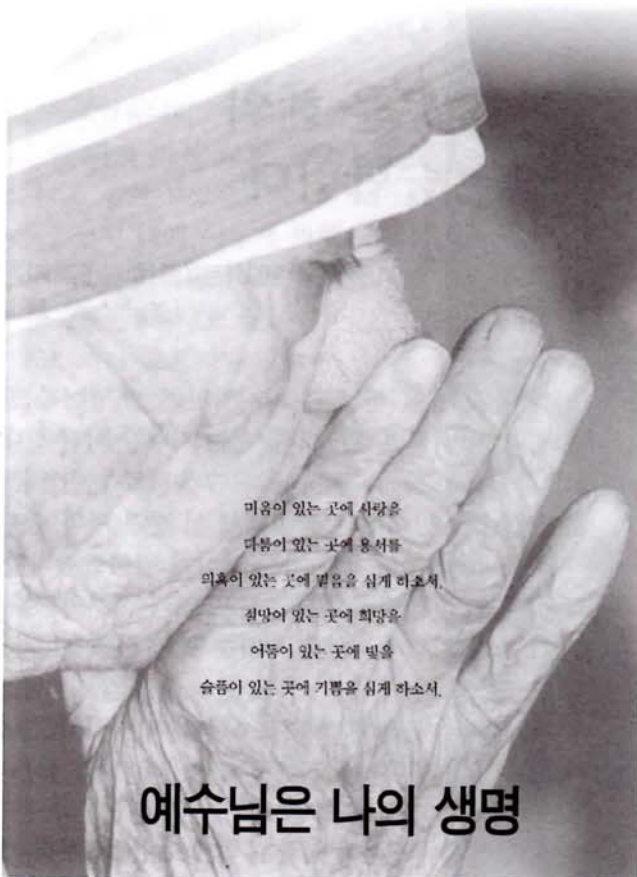
요조 조브코 신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제대 위에서 빵을 축성하는 사제의 손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일어 나고 있습니다.

사제가 빵을 들어 하느님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현존하심을 재현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밀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한 방울의 물이 성작 안의 포도주와 섞이며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피로 변합니다.  
값어치 없었던 그 한 방울의 물과 빵은  
사제의 축성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신성한 변화를 이루어 냅니다.

그 한 방울의 물과 빵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것은 인간과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어 줍니다.  
오직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예수님과 일치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부활시켜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해 거룩한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열매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름이 있는 곳에 용서함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 예수님은 나의 생명

캘거터의 마더 데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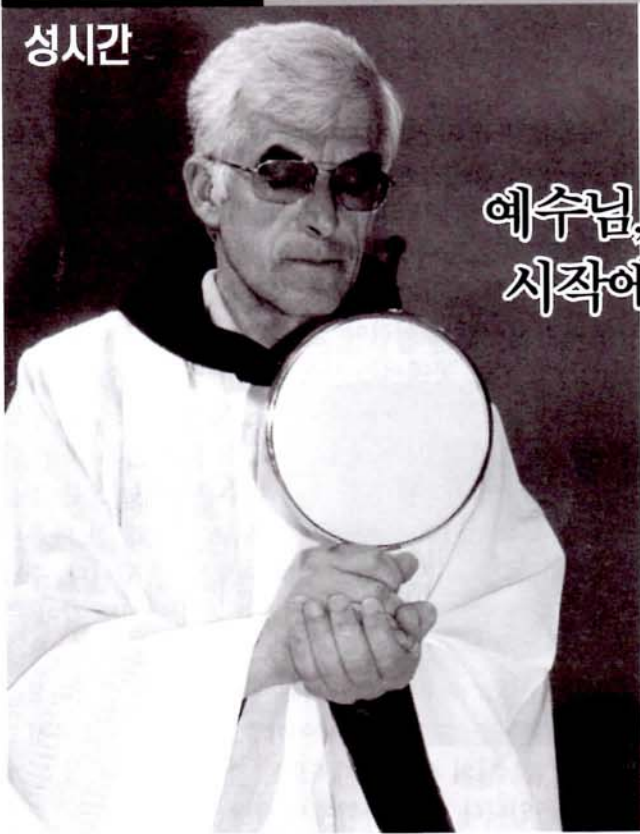
나는 주님을 항상 내 눈앞에 모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내 오른편에 계시기에 나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내가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께 내 자신을 무조건 내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여정이 얼마나 먼 길인지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가 표류하는 배와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나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하는 일이 어렵게 여겨질 때에는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충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에서라도 우리가 마음 쓸 것은 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일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이룬다는 큰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작은 일은 어쨌든 작은 일이지만, 작은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은 큰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난쟁이 안에 계시든, 거인 안에 계시든, 그분은 똑 같은 주님이 아니신가요?"라고 말했습니다. 내적 생활을 참되게 하는 사람은 활

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빛이 나고 어떤 일이라도 끝까지 다 잘 해 냅니다. 이 사회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남의 집에서 일하는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도와 드리는 아들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온전히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라야 진정한 동반자가 됩니다. 이들은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사랑을 나누고, 고통이 있는 곳에서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들입니다.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생명도, 피도, 모두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드릴 차례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맡깁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랑에 찬 마음의 화로에서 막 구워낸 '맛있는 음식'과도 같아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물 한 잔을 주는 사람에게도 값어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난이야말로 하느님을 소유하고 이 땅에 하느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참된 방법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사랑은 타는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타다가 꺼진 불꽃이 아무 쓸모가 없듯이, 사랑이 없는 사회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또 거기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어, 좀더 풍요롭고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소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살이의 실패들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겸손하고 인내롭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매일 겪고 있는 고통과 갈등들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믿어 인내롭고도 용감하게 그 고통과 갈등에 맞서게 하소서."

"예수님은  
 나의 하느님  
 나의 생명  
 나의 유일한 사랑  
 내 모든 것 중의 모든 것  
 나의 재산이십니다.  
 예수님  
 나는 마음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M

<샘에서 생기를... 에서 발췌>





## 예수님, 저는 이 새로운 해의 시작에 당신을 흠송합니다

슬라브코 바르비리치 신부 지음  
신경남 신부 옮김

예수님, 당신께서는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이시기에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시기에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의 모든 시간이 당신의 손에 놓여 있기에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 마리아께서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모든 면에서 당신과 함께 하셨으며 영원히 계시는 마리아와 함께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마리아께서 지상에 계실 때 당신은 언제나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신께서는 그분의 시간의 완성이었고, 당신은 그분 생애의 모든 순간, 시간, 날들, 해들의 시작이고 마침이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메시지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너희는 기도 중에 하느님을 만나 뵈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며, 너희가 그 부르심에 완전히 자유롭게 응답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니 어린 자녀들아, 하루 중 정해진 시간을 마련하여 평온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창조주 하느님을 만나도록 하여라.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며 하느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전구한다. 언제나 깨어 있어라. 그러면 기도 중에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의 모든 만남이 기쁨이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다." (1988년 11월 25일)

마리아여, 저는 올 한 해의 마지막인 오늘 당신과 함께 예수님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저는 지나간 시간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당신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께서 이 순간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저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 저를 위해 전구하고 계시고,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기쁘게 만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예수님, 이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순간 저는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흠송합니다.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한다.)

예수님, 당신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셨기에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당신께서는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이시기에 모든 시간은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시작이요 마침이십니다. (...) 당신께서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줍니다. 오 예수님, 제가 시간의 흐름을 깊이 묵상하는 동안 저는 사도 바오로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페 1:3-7 참고)

- 예수님, 당신께서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당신 자신을 위하여 저를 뽑으셨으니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찬양을 받으소서.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한다.)

예수님, 성부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모든 날, 월, 해를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저의 시간은 당신의 영원한 시간 안에 잠겨 있기에 참으로 복되나이다. 이 성시간 동안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저희가 시계 바퀴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순간은 유일하고, 모든 순간은 저에게 당신의 사랑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줍니다. 제가 이를 의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의 이기적인 목적들을 위해 시간을 쓰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나쁘게 사용한 모든 순간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이제 저는 저의 모든 시간을 당신의 손에 맡기며 시편 저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시편 71 : 1 - 9, 21 - 24a 참고)

-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구하셨기에 제 영혼은 당신 안에서 노래하고 기뻐하나이다!

(침묵 중에 이 기도를 반복한다.)

예수님, 당신께서 저의 힘, 길잡이, 생명, 기쁨 그리고 제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시에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 없이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성취한 모든 선함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저의 선한 행위가 이기심, 잘못된 지향, 자기중심의 그늘, 자만, 자기만족을 드러내려는 욕망으로 얼룩져있다면 정화시켜주십시오. 오늘 저녁 저마다의 마음에 감사의 정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당신께 노래합니다. 당신의 은총이 언제나 저희에게 내리게 하소서.

(그 동안 받은 좋은 모든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합니다. 또한 저는 이 밤에 제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많은 순간 저는 악이 저를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했으며, 그 악은 제 안에 쌓여 있습니다. 악으로 인해 제 안에는 상처와 나쁜 의지가 남겨졌습니다. 저는 종종 악에 협력하고, 제 마음은 불신, 분노 그리고 공격성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복수심, 자만 그리고 질투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이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드리며 당신의 자비에 그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이 새로운 때, 저는 완전히 정화되고, 자유롭고 모든 짐을 던져버린 가운데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의 의지를 치유시켜주소서. 그러면 제가 기쁘게 당신께, 보다 더 가까이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 모두를 내 망토로 감싸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싶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모든 과거와 너희 마음에 쌓인 모든 악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죄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기도할 때 너희는 기쁨

에 이르는 새로운 길을 깨닫게 되리라.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솟아나 너희는 나와 내 아들 예수님께서 너희 각자에게 바라시는 바를 기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축복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다." (1987년 2월 25일)

-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저의 과거, 저의 현재 그리고 저의 미래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하여 저는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고, 임마누엘이신 저의 하느님 당신과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하고, 회심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예수님, 올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해의 시작에 서서 당신을 흠송합니다. 저는 마리아께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 지니셨던 것과 똑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사랑 속에서 성부와 당신께서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아무런 주저함 없이, 성부의 뜻에 저항하지 않고, 온전히 당신께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시간의 은총을 온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오, 예수님, 저는 저의 모든 뜻을 다해 서약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내 인생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보아라 오늘 나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너희를 부른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하느님이 인류를 구원하려는 원대한 계획에 쓰기 위해 너희 각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온전히 깨닫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너





희 역할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기도하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한 하느님을 계획이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에 너희는 온전히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다." (1987년 1월 25일)

-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당신께서 당신의 계획들 속에 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기도를 반복한다.)

예수님, 당신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에 당신을 흠송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당신을 경배합니다. 저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당신 또는 당신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 이들, 폭력과 투쟁을 선호하고 악령의 인도에 자신들을 맡긴 이들의 이름으로 저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 시간의 주님이신 예수님, 올 해가 저와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기도를 반복한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흠송하고 작년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으나 이제는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당신의 나라로 부르셨나이다.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모든 희생자들, 집 밖에서 사고를 당하고 각종 재난으로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 갑작스럽게 준비 없이 죽은 모든 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오 예수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극심한 고통 중에 죽어간 이들, 특별히 마약, 알코올 그리고 에이즈로 인해 희

생된 젊은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

예수님, 이 해에 이 세상을 떠날 모든 이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당신을 만나 뵙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저희 모두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그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 저와 다른 모든 이들이 당신께서 마태오 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태: 24, 45-51참고)

(이제 당신이 죽는 그 순간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기도를 바치고 당신의 임종 순간에 당신 가까이 있게 될 사람들을 또한 주님께 봉헌한다. 그리고 지금 서서히 죽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축복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는 성령 안에서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저를 이끄시고 시간과 공간을 통해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저를 치유시켜주시고, 제가 언제나 충실하게 하소서. 저의 가정, 교회, 제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을 축복하소서. 저희에게서 모든 악을 몰아내시고, 저희에게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 당신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소서! 당신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시며 모든 세기와 영원이 당신께 속하나이다. 아멘. **M**



##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성체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대사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찬미와 기도를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은총과 치유의 성 시간

매월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성모 신심 미사 및 성시간

장소 및 문의 : 서울 옥수동 성당 (02-2297-2038)

신경남 신부님의 주례로 묵주 기도와 거룩한 미사, 성체 강복 및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 김훈 울리아노 옴김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성서 묵상 : 이사야 1:5 - 6

아직도 덜 맞아서 어긋나기만 하는가?

머리는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어 상하고 멍들고 맞아 터졌는데도 짜내고, 싸매고, 약을 발라주는 이도 없구나!

이사야 : 53, 5 그를 찢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으므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으므로 우리의 병이 고쳐졌구나!

묵상기도: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셨다 일어나 무거운 십자가를 힘겹게 지신 주님! 십자가의 무게를 도저히 지탱하지 못하여 또 넘어지신 주님! 세 번째 넘어지신 주님 앞에 죄인인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에 짓눌리어 넘어지실 때 마다 주님의 온몸은 상처가 더욱 찢어지고 헤어졌으며 고통이 심했습니다. 세 번째 넘어지심으로 십자가 처형이 늦어지자 악당들은 참을 수 없어 욕설을 퍼부으며 주님을 채찍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선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 저는 또,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던 사소한 것에는 불만을 하였으며 진리와 정의를 옹호하는데 주저하였고 귀찮아 하였습니다. 남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이 저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된 저희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다시 일어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또한 저 때문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힘 있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주소서. 예수님! 평화 없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부간의 싸움, 별거와 이혼으로 자녀들이 희생되고 있

며 온갖 악습과 범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의 불화,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으로 가정의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한 오늘날 젊은 부부들은 모태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은총을 베푸시어 죄의 수렁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해주소서.

예수님!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된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무서운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은총과 힘을 주소서. 예수님!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모퉁이 주춧돌이셨지만 바리새이파와 악당과 군중들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뱌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버리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성모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졌을 때 성모님의 마음은 또 다시 예리한 칼날에 찢리듯이 심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수난에 동참하신 성모님은 당신의 아픔과 아드님의 넘어지신 고통을 아버지 하느님께 봉헌하셨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죄에 떨어져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내려달라고 하느님께 전구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넘어지심을 묵상하는 이 9처에서 특히 성모님께서 1985년에 주신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께서 너희가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신다. 하느님께서 일상의 여러 가지 일을 통해 너희를 시험하고 계신 것이다. 이제 평화롭게 모든 시련에 맞서기 위해 기도하여라.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시련을 통해 너희가 하느님께 더욱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그분께 다가가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다.” (1985. 8. 22)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 10처로 가며)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사탄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발현목격자 미리아나의 증언 - 6 -)

미리아나는 6명의 발현 목격자중의 한 사람이며 1982년 12월 성탄절에 성모님으로부터 정화의 시기에 이 세상에 일어날 10 가지의 비밀을 받고 이제 매일 발현은 끝나게 되었다. 성모님께서서는 매년 그녀의 생일인 3월 18일에 오시겠다고 하셨으나, 그녀가 미래에 일어날 10가지 비밀을 알고 몹시 고통스러워하자, 현재까지 매달 2일에 발현하시어 위로와 메시지를 주시고 계신다. 미리아나는 특별히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 편집자 주 -

질문 : 미리아나, 성모님께서 우리들이 바치는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미리아나 :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서는 지상의 모든 자녀들의 기도와 보속을 예수님께 바쳐드립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서는 지상의 모든 이들이 당신의 거룩하신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돕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질문 : 복되신 성모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보속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나요?

미리아나 : 네, 성모님께서서는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당신이 하는 모든 기도가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기도입니까?

미리아나 : 네,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자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당신 자녀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우리는 모두 성모님의 자녀들입니다.

질문 : 미리아나, 성모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미국 오레곤 주에 있을 때 받은 메시지와 다른 것인가요?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

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보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지요?

미리아나 : 네, 성모님의 메시지는 처음 발현하셨던 그때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모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성모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미리아나,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지 않는 이들이란 어떤 이들인가요?

미리아나 : 성모님께서서는 때로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자녀들마저도 믿지 않는 이들처럼 살아 갈 때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성모님께서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매일 매일 기도하여라.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서는 온 세상의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하나의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장소로서만 찾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성모님께서서는 그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정말 하느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미리아나, 요즘도 복되신 성모님께서 당신에게 사탄에 대해 말씀하시나요?

미리아나 : 네, 성모님께서 금년 내 생일날 발현하셨을 때도 사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당신의 생일 1991년 3월 18일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미리아나 : 복되신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매일 매일 기도하여라.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주어 고맙다. 나는 너희가 자주 모여 내 아들에게 기도하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나와 내 아들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을 기도로 봉헌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그들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해 다오. 나의 자녀들아! 얼마나 많이 내가 너희들을 메주고리에 와서 기도하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나는 계속하여 너희를 부를 것이다. 내 아들이 너희 안에 평화와 사랑을 채워줄 수 있도록 내 아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여 다오. 그리고 기도로써 너희 안에 채워진 평화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라.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나는 너희들이 나의 메시지를 삶 안에서 살아 가도록 청한다. 내가 너희에게 자주 말하지 않았느냐? '기도! 기도! 기도하여라!'고. 왜냐하면 오직 기도로써만이 너희를 멸망의 길로 유혹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 나는 메주고리에서 벌써 10년이 넘게 너희를 위해 내 아들에게 기도해 왔다." (1991. 3. 18)

질문 : 미리야나, 때때로 당신도 믿지 않는 이가 된다고요?

미리야나 : 의식적으로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요.

질문 : 그것 참 흥미롭군요. 그러니 때때로 가장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도 무의식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미리야나 : 우리들은 모두 때때로 하느님을 믿는 마음과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의 결핍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 믿음, 희망과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확실하고 철저한 믿음을 위해서요.

질문 : 왜, 당신은 복되신 동정녀의 위로가 필요한가요?

미리야나: 비밀 때문이죠. 나는 믿지 않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지금은 은총의 시기입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간직할 수 없는 물질에 그들의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미리야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말해주시겠어요?  
미리야나 : 복되신 성모님께서서는 창조주 하느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 가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시 지나가 버릴 것들을 위하여 그들의 삶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만능주의에 병들어서 세속의 권력과 힘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눈물과 번민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허무하고 우리의 생명은 참으로 짧기 때문입니다.

질문 : 미리야나, 복되신 성모님께서 매달 주신 메시지 중에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생명을 꽃과 비유하신 메시지가 있었지요?

미리야나 : 네, 꽃은 피어있는 동안은 아름답지만 그 생명이 참으로 짧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M**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Visions of The Children/어린이들이 본 메주고리에의 성모마리아에서 발췌>





## 메주고리에에서 바뀌어진 나의 삶

밀로나는 유럽 오스트리아에 있는 합수브르크 왕가의 공주이다. 그녀는 6개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여러 개의 학위를 소유하고 있는 유능한 여성이다. 재물과 아름다움, 명성을 겸비한 그녀의 주변에는 늘 많은 친구들이 있었으나 웬지 마음은 공허하고 텅 빈 것처럼 살아왔다. 밀로나 공주는 어느 날 메주고리에라는 작은 산간 마을에 와서 성모님의 발현에 참석한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체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때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침착한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 그 순간 가슴이 너무 떨렸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그분께 봉헌하면서 내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미로움에 내 자신이 젖어 드는 것을 느끼며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나를 커다란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앞으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메주고리에에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곳을 찾아 오는 젊은이들이 어머니 마리아께 청하기만 한다면 그분께서는 젊은이들이 인간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갈구하고 있는 사랑과 평화를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 산을 오르면서 형용할 수 없는 감미로움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놀라 숨쉬기도 힘들 것 같던 그 순간에 저는 숨을 쉬고 또 다시 내쉬면서 마치 그 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모든 독소들이 다 없어지고 내 마음이 저절로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손에 쥐여진 묵주로 기도하기 시작 했을 때, 내 삶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하느님을 찾지 전에는 만족할 수 없던 열망과 형용할 수 없는 그 리움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삶, 하느



밀로나 공주와 함께한 편집인

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분의 사랑이 나의 심장을 뚫고 지나 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쏟아져 내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 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온전히 내 자신을 그분께 의탁했습니다. 제 삶이 바뀌었나구요? 네, 온전히, 하느님께 나의 삶을 드리니 그 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내가 메주고리에에서 무엇을 배웠나구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의 사랑을 받아 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살아 계신 하느님은 충실하신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눈물과 아픔, 시련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후, 밀로나 공주의 도움으로 합수브르크 왕가의 많은 왕족과 친인척들, 현 왕세자와 그 외의 많은 귀족들이 메주고리에를 다녀갔다. 그들은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내어 주는 소박한 잠자리에 감사하면서 내적 깊은 곳에서 솟아 나오는 기쁨과 행복함을 느꼈다. 밀로나 공주는 슬라브코 신부님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와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하였다.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협력자들에게 이렇게 크거나 작은 일을 맡기시기도 한다. 우리는 성모님의 부르심에 단지 '예'라고 대답할 뿐이다. **M**

(어린이들이 본 메주고리에 / 메주고리에로부터 들려오는 성모님의 부르심에서 발췌, 정리)





**기**도는 침묵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려면 우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고요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 살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맑은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 맑은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하느님을 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께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고요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분께 말을 건넬 수가 없습니다. 기도란 본래 우리를 고통스럽게, 불편하게,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미리부터 즐거운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곧 내 몸과 마음, 내 자신 전부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요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가다듬고,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 고요한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성모 마리아는 '모든 일을 마음속에 새기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침묵을 지켜 주님께 더 가까이 갔던 마리아는 어떤 후회스러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괴로워 할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단 한 마디 말로 요셉의 모든 의혹을 몰아낼 수 있었으나 오히려 침묵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의 순결을 요셉에게 기적으로 증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침묵과 고요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절실하게 깨닫기를! 그렇게 될 때에 하느님과 내적 일치를 향한 길이 환히 트일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둘째,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러면 언제나 하느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창문과 같아서, 이 눈을 통해 그리스도도 세상도 우리의 마음 속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지내려면 때로 우리에게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그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말하지 않는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엇이나 다 보려는 욕망을 극복하지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셋째, 입을 다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 말씀드리는 것, 언제나 기뻐하는 것, 화젯거리를 풍부히 가지는 것 등을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웃이라는 중개자를 통하여 흔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묵상할 때에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침묵을 벗으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애타게 찾아도, 온갖 소음과 동요에서는 그분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연의 나무와 꽃, 풀들이 아무런 소리 없이 자라나는 것을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이 말없이 운행되지 않습니까? 고요한 기도 안에서 많이 언으면 얻을 수록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길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려면 우리에게 이런 침묵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런 침묵 가운데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하느님과 참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분의 뜻에 맞게 되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같게 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분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곧 예수님의 삶이 될 것입니다. **M**

마더 테레사 수녀 <샘에서 생기를... 에서 발췌>





##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최 로사 (시카고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여는 때와 같이 아침 미사와 묵주기도를 끝내고 집에 와서 하루 할 일을 점검하고 있을 때, 다락방 기도회를 통해 친분이 있는 손 헬레나 자매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11월에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요조 신부님을 모시고 미주 지역을 방문할 계획과 시카고 한인 성당에서 초대를 하면 오실 수 있다는 이 믿기지 않는 소식에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메우고리에 순례를 다녀온 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성모님의 메시지를 나누며 매주 몇몇 자매님들과 다락방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이 큰 행사를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큰 것 같아 한동안 망설였으며, 한편으로는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갈등했습니다. 근처의 한인 성당은 사정상 초청을 하였지만 장소가 비좁아서 어렵게 되었지만 성모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은총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또 성모님의 사업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 테레사 자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며칠 후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는 묵주기도를 바치고 저희 본당 신부님께 요조 신부님께서 시카고에 오신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행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성모님께서 메우고리예를 갈망하는 당신 자녀들에게 메우고리에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요조 신부님을 시카고까지 보내주시려 하신다는 확신이 섰기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사목회장님께서 본당의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이렇게 큰 행사를 성당에서 계획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을 주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남미카엘라 자매님께 전화를 했더니 다른 피정 장소를 알아보자고 하였고, 그 후 저는 성모님께 매달리듯 기도하며 알아 보았지만 모두 불가능한 듯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8월호 '메우고리에' 소식지에 있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마음 홀어지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거라. 나는 참 엄마로서 네게 모든 것을 안배해 준다. ... 네가 만나야 할 사람, 네가 해야 할 일 같은 것 말이다. 신뢰

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습관을 길러라. 너희들 모두 아름다운 말김의 정신으로, 이 엄마의 활동을 더 없이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성모님께 맡겼다고 생각 했는데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만 했던 저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깨우쳐 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피정 준비 기간 내내 성모님의 현존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며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일일 피정을 하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적합한 Techny 성당을 일일피정 장소로 하고 싶어서 사용이 가능한지 알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 날만 예약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성모님께서 그 장소를 사용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당 주보의 피정 신청서에서 내 이름을 발견 한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제가 준비하는 일이라고 물었고, 저는 마음속의 불안함을 감추고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거부 반응을 보일 줄 알았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저를 보고 묵주를 든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부르는 남편에게 피정에 관한 것은 사전에 아무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기에, 다만 남편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아이들과 매일 저녁 묵주기도를 드리며 조용히 피정 준비를 했습니다. 4개 성당을 대상으로 피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지 2주일이 넘었는데도 신청한 신자의 숫자가 60명도 안되어서 초조한 마음에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 만나가며 피정 참석을 권유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어느 신부님께서 성모님은 왜 조용히 계시지 못하고 자꾸 나서시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자녀들이 염려 되어서 성덕의 길을 따르도록 권유하시는데 우리는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헤드리고 상처만 드리는 것 같아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저는 성모님께 당신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맡기고 피정 며칠 전까지 구입하지 못한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때문에 걱정을 하며 힘든 마음에 성모님의 전구를 간절히 구하고 있을 때 남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피정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를 묻는 남편에게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했다니 선뜻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저를 안심 시켰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남편의 협조적인 모습에 하느님을 찬미하며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피정 전날 금요일, 저와 데레사 자매는 설레는 마음으로 요조 신부님과 봉사단 일행을 마중하러 공항에 나갔습니다. 그 동안 전화로만 통화했던 남 그레고리오 형제님과 미카엘라 자매님을 직접 만나 너무 반가웠고, 메우고리에 순례때 뵙고 존경해 오던 남 마르타 자매님, 처음 만난 낸시 부부가 모두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요조 신부님을 뵙는 순간 꼭 성모님을 뵙는 것 같아 행복에 젖은 채 너무 기뻐했습니다. 봉사자들과 함께한 저녁미사 때에 요조신부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그동안 피정 준비로 힘들고 상처 받았던 일들이 눈 녹듯이 녹아 버리고 제 마음은 평화로 가득 찼습니다.

토요일 피정 때 남편은 새벽부터 친구와 함께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하러 저보다 먼저 성당으로 갔으며 후에도 몇 번이나 집과 성당을 오가며 많은 봉사를 자청하여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남편이 성모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 드렸습니다. 일일 피정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백명 참석하셨고, 그 중에는 타 주에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요조 신부님의 은혜로운 강론과 묵주기도, 성시간, 미사, 성체 거양의 축복은 하느님의 현존을 갈망 하던 저희 모두에게 내리는 천상의 양식이었습니다. 요조 신부님을 통해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호소는 피정에 참석한 모든 이들 마음 안에 큰사랑의 응답으로 심어 졌으리라 믿습니다.

꿈 같은 피정을 마무리 할 때쯤, 미카엘라 자매님이 다음날 있는 영어권 피정에 참석할 것을 권유 하였으나 망설이는 저 대신 남편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아주셨습니다. 영어권의 일요일 피정은 2천명 이상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고 친구 데레사 자매와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피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적 같은 사실을 성모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특히 성체 거양 때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내 마음은 불타는 듯 하여 감사의 눈물이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레고리오 형제님이 찍은 행사사진들에서 많은 성체의 형상과 또 다른

사진에는 성체 안에 비둘기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희들에게 성체의 중요성과 주님께서 당신이 현존하시면서 항상 저희와 같이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표징으로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정이 끝나고 미카엘라 자매님은 저를 영어권 봉사자 빌의 집에서 요조 신부님과 함께 하는 저녁 만찬에 초대해 주셔서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를 저녁식사에 초대해 주신 부부는 메우고리에 순례를 통해 알코올중독자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자신들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물질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하느님의 것으로 생각하며 기쁘게 봉사하는 빌이라는 형제님 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봉사자들, 특히 남 그레고리오 형제님과 미카엘라 자매님의 희생과 성모님께 대한 헌신적인 사랑에 마음이 숙연해졌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님을 사랑하는 저의 삶의 가치관과 초점을 어떻게 맞추고 살아야 할지 응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사람들과 만남의 순간들을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제 마음에 고이 새겨 놓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떠나는 요조 신부님과 일행을 배웅하러 공항에 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같이 한 봉사자들과의 이별이 가슴 아프고 헤어지는 것이 너무 슬퍼서 미카엘라 자매님을 껴안고 평평 울었습니다. 남 마르타 자매님은 환히 웃으면서 제 남편이 메우고리예로 오는 순간까지 기도하겠다고 전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마음 깊이 감동하여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값진 체험을 가능케 해 주신 요조 신부님을 비롯하여 그레고리오 형제님, 언니처럼 챙겨주신 미카엘라 자매님, 마르타 자매님, 낸시 부부와 모든 음악 봉사자들에게 제 사랑을 보내며 앞으로도 그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피정 준비에 함께 수고해 주신 데레사와 손 헬레나를 비롯하여 많은 봉사자들, 사랑하는 우리 남편에게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성모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감사와 찬미로 충만하도록 변할 수 있게 해 주신 성모님께 나의 모든 사랑을 바치고 제 남편을 메우고리예로 불러주실 은총의 그 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M**





## 요한나 할머니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남미카엘라

내가 천주교 세례를 받은 지도 어언 30년이 되었다. 나는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와 더불어 거룩하게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는 천주교가 무척 좋아서 불교를 믿으시는 부모님 모르게 혼자서 명동성당을 다니면서 이기정 신부님께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았다. 성모님은 참된 신자의 도리와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나를 명동성당의 '하늘의 문 P'의 레지오 단원이 되도록 인도해주셨다. 그곳에서 선배 단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신앙생활을 배우던 나는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모범을 보여주던,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다. 내가 먼저 시외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남편에게 이야기 한 것은 결혼한 지 2개월이 되었을 때였다. 할머니는 나를 처음 보자마자 우리 손자며느리라고 부르시며 우리들의 결혼을 서두르게 하셨다. 할머니는 성모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던 분이어서 우리들의 결혼도 성모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하시며 성모 성월인 5월에 하도록 하셨다. 할머니는 10명이 넘는 손자 손녀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외손자인 남편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게 특별하셨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철부지 손자 며느리에게 외손자가 좋아하는 음식과 천주교 신앙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시려고, 천주교 사제는 무엇을 하는 분이시며 왜 목주기도와 15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었다. 나는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촛불을 밝히고 애절한 모습으로 목주 기도를 하시는 할머니가 너무 측은하고 불쌍해 보였다. 그럼에도 하루 종일, 또 다시 목주를 손에 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웬지 신앙 안에 있는 믿음의 거대한 힘과 숭고함이 느껴졌다.

198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 날 늦은 밤이었다.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라서 피곤한 몸으로 단잠을 자던 나는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깨었다. 방문을 열고 보니 할머니가 긴 코트와 목도리로 중무장을 하신 채,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 당시 할머니는 몇 년째 심한 해소 천식으로 또, 최근에는 심장병으로 몇 번씩 응급실을

다녀 오시곤 하실때였다. 나는 "할머니, 어디가시려고요?" 하고 외출을 하시려는 할머니를 말했다. 할머니는 인자하신 미소로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크리스마스 자시 미사 가려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숨이 차서 대문 밖에도 못나가시는 할머니가 눈이 수북히 쌓인 한 겨울 밤에 성당을 가신다니... 나는 깜짝 놀라서 할머니를 붙들고 말씀을 드렸다. "할머니, 지금은 너무 추워서 안돼요. 먼저 건강 회복하시 우리 내년에 같이 가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느님만 아시는 것인데, 내가 내년을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어쩌면 이번이 나에게 마지막 성탄미사가 될지도 모르니 그냥 갈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파왔다. 그래서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도 준비하고 나올게요." 라고 나서자 이번에는 오히려 할머니가 깜짝 놀라셨다. "안된다. 홀몸도 아닌 배불뚝이가 넘어지더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하지만 나는 못들은 채, 얼른 방으로 들어가 서둘러서 옷을 입고 나왔다. 아무 말없이 나를 바라보시던 목도리를 풀어 내 목에 감아주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길을 걸어 성당을 향했다. 평소에 믿는 사람들의 명당자리인 성당을 갈 때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으면 다 명당이라고 하시던 할머니 집은 대방동 성당 바로 아래에 있어서 5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였다. 하지만 그날 밤은 바로 앞에 있는 성당이 마치 먼 길을 떠나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웠다. 유난히 춥고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니, 숨이 차서 색색 소리를 내시며 한 발자국을 걸을 때마다 한참을 쉬어야 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잠시 쉬고 있을 때, 자정 미사가 시작되는 종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와 나는 발길을 멈추고 성당을 바라보면서 같이 성호를 그었다. 간신히 성당에 도착한 할머니에게 누군가 자리를 비워주었다.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계시던 할머니는 영성체 시간이 되자 내 손을 잡고 일어나셨다. 불교 집안에서 자란 나는 명동 성당에서 6개월을 교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성체 안에 예수님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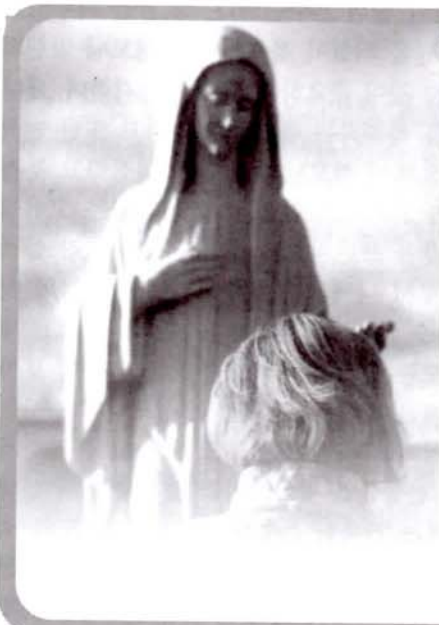
했다. 그러나 성체를 모시기 위하여 인간힘을 쓰시는 아  
니, 젓 먹던 힘까지 다 하시는 할머니를 뒤따라가며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거룩함을 마음 가득 느끼며 성체를  
모셨다. 할머니는 신부님 앞에서 머리를 깊이 숙이시더니  
양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입으로 성체를 영하셨다. 그리고  
자리에 돌아와 다시 두 눈을 감은 할머니는 미사가 끝나  
고 교우들이 성당을 정리하려고 할 때야 비로소 눈을 뜨  
시고 기쁜 얼굴로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집으로 돌아 오신  
할머니는 "고맙다. 얼른 들어가 자거라." 하시며 평화로운  
얼굴에 웃음을 지으시며 나를 꼭 안아 주셨다.

그리고 며칠 후인 1981년 1월 16일 할머니는 가족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혼자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예수  
님과 성모님의 집으로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가셨다. 그  
때가 할머니에게는 마지막 크리스마스 자정 미사와 성체  
성사가 되었다. 나는 할머니가 누워 계신 관이 땅속으로  
묻히는 것을 바라보며 할머니와 약속했다. "할머니, 고맙습  
니다. 이제는 저도 성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  
을 수 있어요. 앞으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대로 성체 안  
에 계시는 예수님을 할머니처럼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할  
게요. 철없는 손주 며느리가 할머니 뒤편까지 기도 많이 할  
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계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할머니가 쓰시던 물건들  
을 정리하다 고무줄로 뽁뽁 묶여 있는 몇 뭉치의 회원권  
을 보았다. 나는 할머니가 돌아 가시기전 그 많은 그 회원  
권의 회비들을 각각 몇 년치 분을 미리 납부하신 것을 보

면서 이미 할머니는 당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느끼고 계  
셨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인간 힘을 쓰시며 미사를  
가시려고 하셨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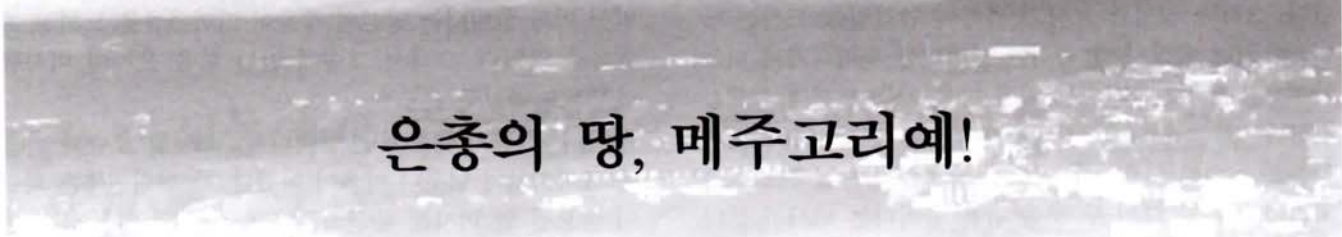
평소와 같지 않으셨던 할머니의 그 날밤 모습과 마음  
을 헤아려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각 회원권에는 회원  
이 죽으면 연 미사를 봉헌해준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카  
드에 적혀 있는 연락처에다 할머니가 돌아 가셨음을 알리  
는 전화를 하면서 비로써 할머니가 돌아가셨음을 온 몸으  
로 느껴져서 마냥 울었다. 그 날밤의 할머니와 함께 참석  
했던 마지막 크리스마스 자정 미사는 철부지 손자 며느  
리에게 할머니가 온 몸으로 남겨 주신 믿음과 신앙의 유  
언이 되었다. 지금도 성체를 모시러 나갈때는 할머니의 색  
색... 하시며 힘들게 숨을 내쉬던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제 내 나이도 50을 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할  
머니가 가르쳐 주신 믿음을 남기고 싶은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 마음으로  
성체를 모시게 된다. 몇년 전에 메주고리에 순례를 갔을  
때에는 할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제일 먼저 이곳을 찾아  
오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동안 부족하나마 믿음  
의 삶을 살고 있는 것도 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천국에 계시는 할머니의 도움이 크신 것을  
느끼며 감사드린다. 오늘도 크리스마스가 가까와오니 할  
머니가 더 많이 생각이 나고 또, 너무나 보고 싶어진다.  
"할머니, 사랑해요. 이제 어머니도 돌아 가셨으니 우리 차  
레네요. 저희들 열심히 살아서 할머니 계신 곳으로 갈게요  
..." M



성모님께서서는 1998년 9월 12일 야콥 출로에게 마지막으로 매일 발현을  
하시면서 앞으로 일 년에 한 번 매년 12월 25일 성탄절에 당신의 발현을  
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올해도 성모님께서서는 성탄절에 그에게  
발현하셨다. 발현은 오후 3시 23분부터 6분간 계속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셨다.

"오늘은 참으로 기쁘고 평화로운 날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여라.  
어린 자녀들아, 나는 특별히 너희 가정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너희를 부른  
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각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오늘 하느님께서 특별  
히 너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너희 가정을 다스리고, 너희 가정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린 자녀들아, 은총의 날인 오늘 너희의  
마음을 열고, 하느님을 선택하며 그분을 너희 가정의 첫 자리에 모셔라.  
나는 너희의 어머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어머니로서 너희를 축복한다."





## 은총의 땅, 메주고리에!

오르비노 베델리오 신부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나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일을 하기 전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총본부에서 전세계에 있는 모든 본원의 재정관리 및 예산을 결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메주고리에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모스타르 교구장이 메주고리에 본당에서 사목하고 있는 프란치스코회의 사제들에 대해 매우 위협적이고 강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편지들을 거의 매일 총장님 앞으로 보내왔을 때이다.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발현의 진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슬라브코 신부님께 직접 그곳을 가 보고 싶다는 연락을 했다.

그 당시 나는 청소년 연극단의 단장과 국가 배구감독을 맡아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단 하루의 휴가를 내어 사복을 하고 신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메주고리예를 향해 떠났다.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저녁에 신부님을 메주고리예로 편안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성모님하고 약속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아무에게도 신분을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늘 잠시도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내던 나는 메주고리예의 하루를 따분하게 산책하고 있던 오후였다. 그때 어떤 사람이 "잠시 후에 비스카의 집에서 성모님의 발현이 있는데 저하고 함께 가실래요?" 하고 물어보았다. 사실 나는 비스카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더구나 성모님의 그런 발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함부로 생각하는 완고한 사제중의 한 사람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걷고 있던 곳이 바로 목격증인 중의 한 사람인 비스카의 집 앞이었다. 우연히 성모님 발현에 참여 하였으나 나는 아무것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놀라운 체험을 마음에 간직하고 다음 날 본부로 돌아왔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다시 메주고리예로 돌아와서 사흘을, 세 번째는 한 달을 지내면서 나의 사제로서의 삶을 성모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청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간 후, 나는 총장님께 이렇게 말했다. "재정 책임자직을 사임하겠습니다." 사실 바티칸에 있는 총본부의 재정책임자는 전 세계 모든 작은 형제회의 예산과 재정을 관리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는 자리다. 모든 관구장들은 총장보다도 나를 더 무서워하면서 눈치를 보고 당연히 나와 잘 지내려고 하니 부족함이 없는 편안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메주고리예를 다녀온 후 내게는 그런 엄청난 파워와 권력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에 편안한 삶의 모든 것을 철저히 버릴 수 있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을 알고부터 참된 사제가 가야 하는 삶과 성소의 방향을 깨닫고 보니 사제의 길이 너무나 소중했다. 수도자의 길을 가고자 했던 나에게서는 그런 막강한 힘과 권력이란 것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다

올 해가 성모님의 발현 25주년이다. 그 동안 메주고리예를 알고 지낸 23년을 되돌아 볼 때, 나는 성모님 발현의 진실 여부를 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발현을 목격하는 증인들도 아니고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으로서 성모님의 발현을 의심하고 부정할 수도 있다. 나는 교회의 문헌을 보고 판단하는 고위성직자는 아니다. 일생을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따라 살겠다고 허원한 사제로서 나에게서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을 절대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메주고리예를 찾아 오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23년 동안 보아 온 나는 메주고리예를 찾아오는 사람 중, 성모님이 주시는 은총으로부터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물론 은총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메주고리예는 거룩한 은총의 장소이고 기도와 회개를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순례자들의 회개와 변화된 모습, 분열되었던 가정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되는 것



을 보면서 나는 그것이 메주고리에의 참 모습이며 은총의 장소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모든 순례자들이 메주고리를 체험하고 돌아갈 때는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임을 굳게 믿는다. 또한 메주고리에 은총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순례자들에게 이곳은 분명히 은총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회개와 변화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는 장소이기에 일상의 삶에서도 그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고 말하고 싶다. 또한 메주고리에는 늘 친절하고 온유하게 받아주며 사랑하는 엄마의 이미지이기에 나는 메주고리에의 영성은 일상의 삶에서 성모님을 닮으려고 겸손하게 노력하며 살아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정 받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하신 성모님의 이미지, 감미로운 기쁨과 환희에 찬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고, 평화를 주는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 가는 것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이다. 혹시라도 이웃이나 가족들에게 이해 받지 못하고 삶 안에서 넘어 질 때라도 자신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나를 일으켜주세요' 라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의탁과 단순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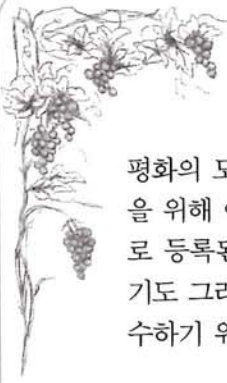
1983년 처음 내가 이름없는 산골마을 메주고리를 왔을 때, 성당주변에는 집도 없고 오직 넓은 들만뿐이었다.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곳이지만 숙박시설이나 식당은 물론이고 화장실조차 없었고 순례자들이 배낭을 갖고 와야 했다. 너무나 가난한 그들은 대부분이 십자가산이나 발현산과 성당주변이 그들의 피곤한 몸을 누일 잠자리였기에 밤 이슬만 피할 수 있어도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순례자들은 어떤 기적이나 형상을 찾아 다니기 보다는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한걸음 한걸음 이끌어 주시는 현존하심을 체험하며 영적으로 충만하고 행복했다. 나는 가톨릭 사제로서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이 진실임을 굳게 믿고 1983년부터 매달 많은 순례단을 이끌고 이곳을 오고 있다. 나는 순례자들에게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발현을 꼭 믿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해 본 적이 없다. 다만 이곳에서 성모님이 주시는 은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으며, 하느님께서 성모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막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을 늘 말하고 있다. 내가 기억하는 작은 에피소드를 말하고 싶다. 메주고리에는 6명의 발현 목격증인들과 성모님의 말씀을 내적으로 듣는 2명의 어린 소녀들이 있다. 내가 처음 이곳에 순례단을 이끌고 오기 시작했던 어느 날, 나는 인솔사제로서 굉장히 화가 나서 두 명 중의 한 명인 엘레나

라는 아이를 찾아갔다. 이유는 순례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삶의 방향과 기도의 응답을 찾고자 "저는 병자라서 치유가 필요하니 기도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그들은 한결 같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순례자들은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 생각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인데 무책임하게 대답하는 그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사제의 권위를 가지고 유난히 키가 작은 10살짜리 어린아이인 엘레나를 추궁했다. "너 내가 사제인 것을 알지? 그렇다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해. 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라고 대답하는데 나는 15년 동안이나 청년사목을 했던 사제이다. 내 경험으로는 현대의 젊은이들을 성당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들과 같이 배구팀이나 연극단도 만드는 등 여러가지 오락들을 해야만 아이들이 미사에 참여했어. 그런데 어떤 아이가 '신부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고 물어 볼 때 내가 '기도해라' 라고 간단하게 말한다고 그 아이들이 성당에 올 것 같으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10살 짜리 꼬마가 말하기를 "신부님은 젊은이들이 신부님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신부님께서 그 젊은 아이들이 필요해서 그곳으로 가시는 것이 아닌가요?" 하고 되물었다. "신부님은 그 아이들에게 가서 신부님께서 주고 싶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해요. 그것들 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이들은 신부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 먼저 기도하는 사제의 모습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신다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신부님을 따라올 거예요." 나는 그 꼬마가 하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꼬마의 말대로 실천했더니 정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개인적인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1983년 메주고리를 알고부터 나의 삶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으로 가득하였다. 이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최초로 구호물자를 가지고 온 사제들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지금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메주고리에 순례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과 기도회를 주관하고 하면서 3개월에 한번씩 메주고리에 소식을 발행하는 편집장직을 맡고 있다. **M**







# 평화의 모후 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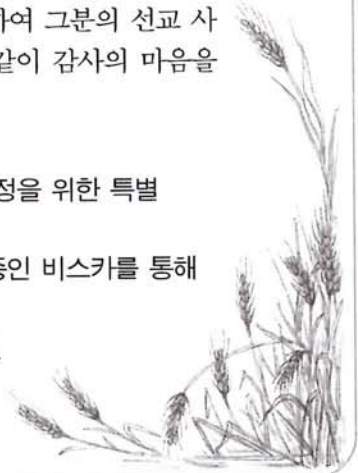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가톨릭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                                 |                                |
|---------------------------------|--------------------------------|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및 무료보급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 3.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7. 메주고리에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 4. 메주고리에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보내드립니다.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_\_\_\_\_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분당: \_\_\_\_\_

해당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월( ) 년( ) 기타( ) 금액( ) 회원번호( )





##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강동훈, 국영주, 김갑식, 김건일, 김경애, 김금성, 김명주, 김명대, 김명희, 김복선, 김봉규, 김분도, 김시순, 김선봉, 김소란, 김숙자, 김용식, 김은희, 김영희, 김예심, 김아가다, 김원경, 김원희, 김유숙, 김주희, 김정녀, 김정연, 김정희, 김정선, 김중숙, 김창성, 김콘솔시아, 김태자, 김해성, 김현영, 김혜숙, 김혜정, 김효정, 김마드리야, 길마리아, 권혁구, 남서, 노마리아, 노아네스, 민헬레나, 민정숙, 류원석, 박프란치스코 & 라파엘라, 박루시아, 박금자, 박일레, 박수현, 박말다, 박병칠, 박혜선, 박찬숙, 박보순, 박캐더린, 백안셀모, 백미자, 백정옥, 성마리아, 서글라라, 서이사벨라, 서진희, 손근숙, 손헬레나, 송광기, 송정원, 송정순, 신마리아, 신현아, 신요셉, 신순덕, 신안나, 신영식, 신숙영, 안소영, 안테레사, 안테화, 엄경숙, 엄봉화, 오루시아, 오미경, 오선영, 오승영, 유미영, 유바올라, 유광문, 윤경만, 윤테레사, 윤멜리디나, 윤정숙, 윤홍식, 윤혜정, 유혜순, 이로서, 이비비안나, 이경, 이토마스, 이명희, 이인영, 이한식, 이마리아, 이경성, 이계숙, 이안나, 이윤영, 이옥금, 이진민, 이동우, 이테레사, 이윤세, 이미애, 임태흠, 임효경, 장영희, 장혜정, 장재현, 조성진, 전세실리아, 전현숙, 정주하, 조용옥, 조현진, 주요안나,

차주연, 채상희, 최성득, 최로사, 최동숙, 최루시아, 최윤나, 최윤희, 최영자, 최동원, 최상환, 표상순, 황혜정, 허글라라, 허정희, 한숙이, 홍경복, 이마리아와 기도회원들, 마라나타샘 기도회원들

Joo D. Kim, Jook Lee, Taeja K. Zuri, Hyungsook Choi, Steve Kwon, Min Sung Pal, Y. Lee, Katherine B. Hahn, Kyle Copeland, Soonga Lee, Y. L, Jae Kang, Anna H Choi, Tak U Lee, Yon's Johns, Agnes & Peter, Filleen Cho, K Larcenaire, Elver O. Donneu, Lee Sunyed, Lee Susie, Dong W Suok, Soonam Choi, P. Ryou, Elly S Sunwoo, Ui Leach, Ken & Nam piper, James F Valenta, Sue K Lee, Chang Suk Dardy, Suyen Ryu,   
 익명의 회원님께서 35호 소식지의 부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36호 후원금	\$ 12,875.00
지출 (36호 소식지)	
소식지 인쇄, 발송 및 후원회원봉투 인쇄	\$ 8,120.00
통신비	\$ 496.00
교통비	\$ 620.00
사무용품 및 기타 비용	\$ 390.00
●지출 합계	\$ 9,626.00
●36호 잔액금	\$ 3,249.00

### 게시판

- 35호의 나눔터에 실렸던 '건망증' 기사는 최강 신부님의 사전 동의 없이 게재하였음을 사과 드립니다.
- '메주고리에' 34호의 유익한 토막 상식' 란에 성모승천을 믿을 수가 없어서 신앙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독자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편집부에서는 이에 '원죄 없으신 성모 기사' 2006년 8월호 월보에 실렸던 오상환 신부님의 성모 승천에 대한 글을 발췌하여 독자의 문의에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의 사전 동의 없이 게재되었음을 지면을 통해 사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신 자매님과 독자들로부터 기사의 내용을 읽고 가톨릭 교회의 믿을 교리와 특별히 성모님의 승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에 감사 드립니다.

##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편집인: 남홍의 그레고리오

지도신부: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서울 옥수동 성당 주임)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편집부장: 최성득

편집위원: 최레지나, 황로사, 남지혜,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인쇄: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USA

**최 레지나**

1565 Brookside Road, Macungie, PA 18062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regina@gmail.com

KOREA

**노선택 마리노**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515-1 B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 soulbassmaster@hotmail.com

CANADA

**이준용 클레**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달라고 너희를 초대한다.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사랑으로 실천하고 온 세상에  
전해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가 마음으로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www.qpmm.org](http://www.qpmm.org)